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특집

의료기부 실천하는 '행복 서포터즈'

의사국가고시 100% 합격하다
'엄지공주' 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
'신장' 질환이 '심장' 질환 된다

2012
통합 의료원보 Vol.10

SCH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9 772234 103000 03>
ISSN 2234-103X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장독대에서

움직이지 않고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는
우리집 항아리들

우리와 함께
바다를 내다보고
종소리를 들으며
삶의 시를 쓰는 항아리들

간장을 뜨면서
침묵의 세월이 키워준
겸손을 배우고

고추장을 뜨면서
맵게 깨어있는 지혜와
기쁨을 배우고

된장을 뜨면서
냄새나는 기다림 속에
잘익은 평화를 배우네

마음이 무겁고
삶이 아프거든
우리집 장독대로 오실래요?

글 | 이해인
사진 | 송봉화(민속사진 전문작가)

PHOTO ESSAY 장독대에서

Feature

02 special feature 나눔 실천하는 '행복 서포터즈'
06 special feature 재학생 100% 합격 의대 캠퍼스에 웃음꽃 '활짝'
10 focus1 '인간사랑 지역사랑' 30년
12 focus2 시설 투자 통해 '환자 만족도' UP!

Confidence

14 history 하늘의 뜻 받들어 인술의 고향 만들다
16 special family 종이 한 장으로 만들어내는 무궁무진한 세상
18 field '엄지공주'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
22 new medicine1 혈관 속 문제아 '피떡', 어떻게 잡을까?
24 new medicine2 경동맥 협착증 미리 치료하면, 오는 뇌경색증 막을 수 있다
26 doctor 꼼꼼한 흉부 방사선 검사 "유방암, 너 꼼짝 마!"
28 knowledge1 소리 없이 찾아와 생명을 빼앗는 '간암'
29 knowledge2 '신장' 질환이 '심장' 질환 된다
30 knowledge2 봄 이사철 '새집증후군' 조심하세요
32 medical campaign '야동' 즐겨보는 우리 아들, 혹시 관음증?

Communion

34 people 션 · 정혜영 부부의 아름답게 사는 법
36 doctor recipe 더덕구이와 삼겹살구이
38 travel 세한지우(歲寒之友)를 만나다
40 trend '오가닉'은 한물 갔다? 이제는 '로가닉'이 대세!
42 world class 명품 안경 'Lindberg'를 주목하라
44 book '혹시 내가 유방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45 movie & stage 로린 마젤, 18년 만에 내한공연

Communication

46 news 순천향 뉴스
50 letter of thanks 동창회 광고
51 schedule 진료 일정표
53 Back cover 감사 편지

순천향의료원 산하 4개 병원이 한마음 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의료나눔봉사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았다.
작가 · 남동윤

〈순천향〉 애독자께 알림

〈순천향〉을 보시면서 더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나 잡지 제작에 조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기획실 02)709-9592 FAX 02)709-9594
E-mail baekju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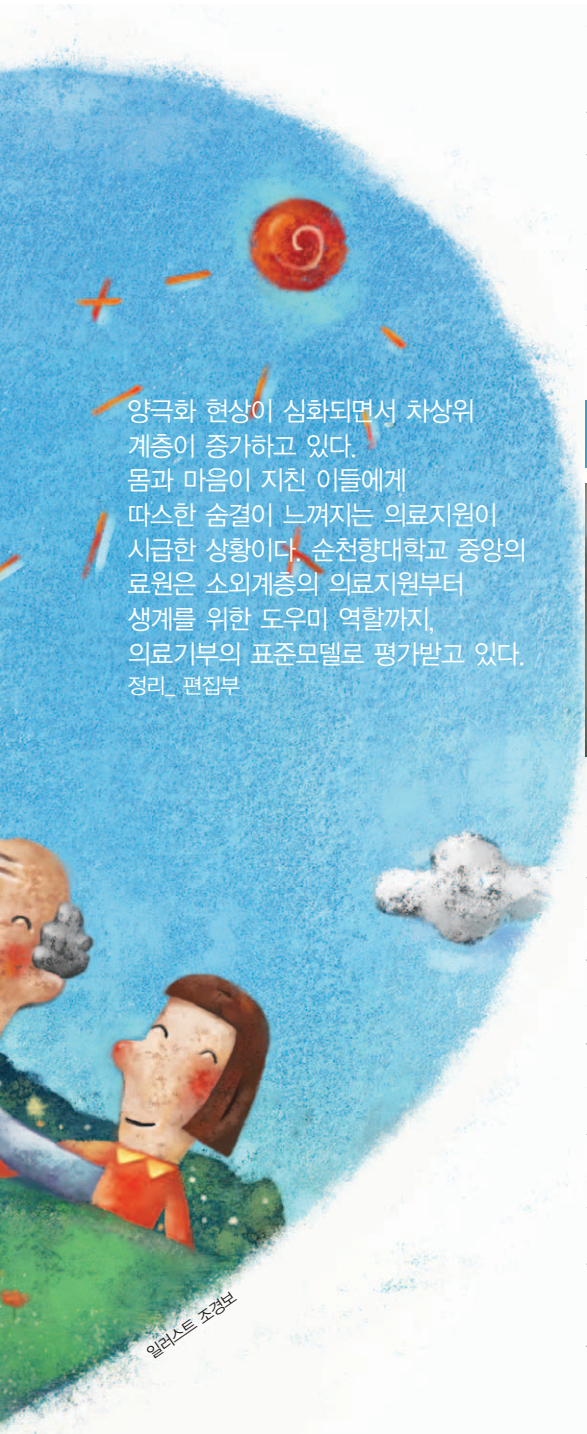
CONTENTS 통합 의료원보 Vol.10

발행일 2012년 3월 15일 **발행인** 김성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7)
홍보팀 02-709-9120 **기획 편집 제작** 피앤플러스 백승주 02-2269-5689 **인쇄** 상림인쇄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은 무단 전재 및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나눔 실천하는 '행복 서포터즈'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의료기부로 새로운 삶의 희망 심어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차상위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따스한 숨결이 느껴지는 의료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소외계층의 의료지원부터 생계를 위한 도우미 역할까지, 의료기부의 표준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정리_ 편집부

일러스트 조경보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서울, 부천, 천안, 구미 등 4개 부속병원은 사회 사업팀 등 전담반을 꾸려,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이웃에게 다양한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생계지원 등에서도 소홀함 없이 응대해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연간 1천여 명의 이웃에게 의료나눔봉사를 펼치고 있으며 사회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치료와 관심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법적, 제도적 규제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한 이들에게도 따스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소외계층은 의료서비스부문에서도 철저히 소외돼 있는 상태다. 몸과 마음에 병이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회 각 기관과 연계해 이들이 건강을 되찾고,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전 임직원은 내가 아닌 우리 즉,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병원 조산아부터 80세 노인까지 무한 돌봄

작년 5월, SBS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김모 씨. 그는 등에 늘 아이를 업고 다녔다. 하지만 등에 업은 것은 아이가 아닌 커다란 육종이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마땅한 거처도 없어, 시청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방송 주인공이다.

서울병원은 김 씨에게 손을 내밀었다. 방사선치료와 수술을 통해 육종을 모두 제거했고, 치료과정에서 발견된 췌장암 치료를 위해 7개월간 항암치료도 병행했다. 김 씨는 과거 거대한 육종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다.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치는 것도 두려웠다. 그러나 수술이후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됐다. 특히 서울병원의 주선으로 사회 각 봉사단체와 연결되며 후원금 지원 등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병원은 특히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비 마련을 위해 관할시청에 긴급 지원과 무한돌봄 사업을 부탁했고, 1천2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개인 후원자를 발굴하여 300만원가량의 후원금도 지원했다. 또한 퇴원 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하고, 환자가 거처하던 교회를 통해 작은 월세집도 마련해 줬다.

서울병원 사회사업팀은 작년 한 해 동안 김 씨를 비롯한 304명의 환자에게 총 4억9천만 원의 후원금 지원을 도와주고, 치료에도 적극 나섰다. 조산아부터 80세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에 악성림프종, 자궁암, 만성신부전, 폐암, 백내장 등 다양한 질병의 환자들에게 소정의 후원금을 지급해 작지만 큰 희망을 나누고 있다.

후원기금은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심장재단 등 원외 후원기

관을 연계하거나, 원내 후원금인 '순천향나눔회'를 통해 만들어 진다. 2004년 결성된 '순천향나눔회'는 서울병원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참여와 사랑의 모금함, 저금통기부, 개인후원자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순천향나눔회 이동환 회장은 "지난해 많은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다양한 활동으로 더 많은 환자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천병원 나눔 통한 아름다운 동행

부천병원 사회 사업팀은 입원·외래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비롯해 퇴원 계획, 재활, 사회복귀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상담과 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전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부천병원 사회 사업팀을 통해 도움을 받는 환자는 연간(2011년 기준) 431명. 금액으로는 5억여 원의 후원금이 부천병원을 찾는 소외계층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후원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금되고 있다. 교직원 후원회, 덕우라이온스클럽, 봉사단체 '밀알회' 등 기부자들의 기부로 마련된 기금은 환우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소득 환자들의 의료비로 쓰였다. 내분비내과 교수의 후원으로 조성된 소아청소년 지원 기금은 청소년 환자의 의료비로, 사랑의 도서바자회 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제공됐다.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후원하고 있는 기금은 과별 추천 환자를 접수받아 환자들에게 각각 지원되고 있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 위탁사업 및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원외에서 위탁한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천병원 사회사업팀은 지난 2008년 향설환우후원위원회(위원장 황승덕 신장내과 교수)를 조직, 후원 기금 일체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운영해 후원금에 대해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후원 대상은 위중한 치료를 시급히 받아야 하는 환자로 국가 지원과 기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천안병원 의료부터 생계지원까지

작년 겨울 천안병원 분만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울렸다.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네팔 국적의 조나단(가명). 조나단은 31주, 1.8kg의 이른둥이(미숙아)로 태어나 엄마의 품에 안기기도 전에 몇 차례의 응급수술을 거쳐 신생아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로 옮겨졌다. 이른둥이인 조나단이 힘겨운 치료를 이어갈 때 부모는 조나단의 건강 외에도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다. 바로 진료비다.

천만다행으로 조나단의 부모는 유학생(신학대학원 재학)으로 국내 건강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없고, 외국인인 관계로 한국의 다른 이른둥이들처럼 국가

유영상 작가의 아름다운 행진

화가 유영상 씨(54세, 남)는 대학 조교 생활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9가지 당뇨병 합병증을 앓고 있는 그는 특히 당뇨병성 망막병증 때문에 가장 괴롭다고 한다.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작품 활동에 임하지 못하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여유롭지 않던 생활 경제는 엉망이 되어버린 것. 동생의 권유로 부천병원 안과를 찾았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던 그에게 치료를 진행할 만한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안과 온영훈 과장과 부천병원 사회사업팀은 유영상 씨의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후원했다. 후원을 통해 무사히 수술을 마친 유영상 씨는 시력이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돼 다시 작품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육안뿐만 아니라 작품 보는 눈까지 새롭게 얻었어요."

그의 기쁨의 에너지는 고스란히 작품에 녹아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 부천병원을 통해 새 삶을 찾게 된 유영상 씨가 앞으로 추구하는 삶은 '봉사하는 삶'. 향후 전시회를 꾸준히 개최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천안병원 사회사업실이 나섰다. 외부후원재단인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와 '사회복지공동모금' 등을 통해 최대 8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회사업실의 도움에서일까 현재 조나단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실로 옮겨졌고 체중 증가가 관찰되고 있다. 사회사업실은 조나단이 퇴원 후 부모들과 나들이하기 편하도록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후원재단을 통해 유모차도 지원해 주었다. 조나단의 부모는 "조나단과 바깥나들이를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조나단과의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국가 지원 사업에만 머물지 않고, 외부후원재단까지 연계해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천안병원 사회사업실은 작년에만 251명의 환자에게 국가지원과 12개 외부후원재단을 통해 4억4천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해 줬다. 천안병원 사회사업은 생계활동을 위해 간병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천안시 자활센터를 통해 무료간병인도 지원해 주고 있다. 아울러 암센터 교육실에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심리적 상담 및 경제적 지원제도 교육도 매월 2회 이상 시행하고 있다.

구미병원 학대받는 이들의 보호공간까지 역할 충실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아기가 버려졌어요."

추운 겨울 교회 주차장에 버려진 아기가 구미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저체온증과 패혈증까지 심각한 상황이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자신이 낳은 자식을 버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병원 내 NGO 단체인 햇살아이지원센터에서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아기의 병원비 일체를 지원해 줬으며 1년간 아기의 건강 상태를 돌보기로 했다. 아기를 버린 것을 후회했던 엄마도 주위의 온정뿐만 아니라 햇살아이지원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가정으로 돌아가 아기를 잘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생모가 찌른 가위에 상처를 입은 후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응급실로 도망쳐온 아동을 햇살아이지원센터에서 보호한 케이스도 있다. 상처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 아동보호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원 가정 복귀를 위한 중재 역할을 했다.

구미병원 햇살아이지원센터는 2007년부터 총 48명의 학대 아동에게 진료비, 수술비, 심리검사를 지원했다.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전문 기관과 연계하는 등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3년간 하트복지재단,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약해 소외계층 빈곤아동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구미병원을 찾은 121명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후원해 줬다. 그 후원 뒤에는 교직원들이 매달 십시일반 내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구미제일라이온스클럽, 병원 내 동호회 등 숨은 기부자들의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환자의 후원을 돕고 있는 구미병원 사회사업 실에서는 미등록 이주근로자와 피해 결혼이주 여성 자녀 등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후원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사국시 재학생 100% 합격 의대 캠퍼스에 웃음꽃 '활짝'

향설의학시뮬레이션센터 등 현장 중심 교육…명문 의대 거듭 확인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에 웃음꽃이 피었다. 최근 시행된 의사국가고시에서 재학생 88명 전원이 합격하면서 순천향의 의료분야 파워와 재학생들의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확인시켰기 때문이다. 첨단 의학 시스템인 '향설의학시뮬레이션센터'를 통한 실습 중심의 현장 교육과 서울, 부천, 천안, 구미 등 4개 부속병원의 인프라가 100% 합격의 배경이다. 순천향대학교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글_ 조영곤 사진_ 임운석

순천향대학교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한 '제76회 의사국가고시'에서 재학생 88명 전원이 합격했다.

올해의 경우 실기시험이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전국 평균 합격률이 예년보다 하락한 92.9%를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순천향대학교의 이 같은 성적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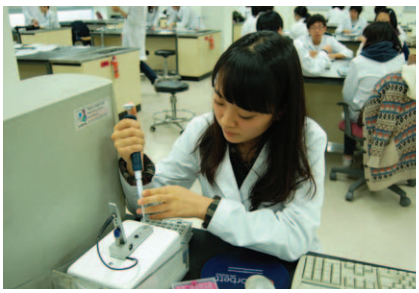
순천향대학교의 쾌거는 우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인프라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 부천, 천안, 구미 등 4개 부속병원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현장 실무 중심 교육과 100여 개 이상의 실습 기구를 갖춘, '향설의학시뮬레이션센터' 운영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는 실기시험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발맞춰, 교육과정 개편을 단행해 의학통합교율을 실시하고, 실습시간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순천향대학교의 이 같은 노력은 예비 의료인 양성의 메카로 거듭나는 다양한 경쟁력으로 발현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는 의사국가고시뿐 만 아니라,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13명도 전원이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보건행정경영학과 졸업생 28명은 의무기록사 면허와 국가공인 병원행정사, 의료보험사 자격 등 3개의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기도 했다. 보건행정경영학과 졸업생 28명은 의무기록사 면허와 국가공인 병원행정사, 의료보험사 자격 등 3개의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기도 했다.

순천향대학교의 이 같은 끊임없는 노력은 다양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 인재양성 사업, 의약 바이오 분야'에 선정되면서 의과대학과 의료과학대학을 중심으로 첨단 의약 바이오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관련, 순천향대학교 김선주 의과대학장은 "전담 지도교수제 도입과 소규모 그룹 스터디, 모의고사 분석지도 등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첨단 의약 바이오 분야의 우수대학 등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견인하는 명문 의대의 면모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합격률 100%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천향 교육 요람 '향설의학시뮬레이션센터'

순천향대학교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재학생들이 우수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노력과 재학생들의 열정이 결합해 의사국가고시 100% 합격이라는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순천향대학교는 지난 2008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대비하고, 재학생들의 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천병원과 천안병원에 '향설의학시뮬레이션센터'를 설립했다.

향설의학시뮬레이션센터는 술기실, 조정실, 문제바탕학습실(PBL, Problem Based Learning), 강의실 등 각종 술기 및 신체 검진 모형 24개종 총 113개의 보유한 실습 중심의 전문 센터이다. 향설의학시뮬레이션센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임상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과, 재학생 스스로 임상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자기주도형 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김선주 학장은 "임상실습 시간을 다른 대학보다 배 이상 높였다. 실습 중심의 교육이 가능한 향설의학시뮬레이션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또 임상 실습에 나서는 재학생 편의 제공을 위해 부천과 천안병원에 실습생 전용 기숙사를 마련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 연구 및 학술 지원도 순천향의 파워 '업' 비결

순천향대학교는 재학생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수진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내외 학회 참가 경비 지원, SCI 논문 편당 400만원, 국내 논문 편당 250만원 등 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양적 ·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 또 기초임상 연구협력실을 설치해 기초임상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임교수, 주저자 및 공저자, 또는 단독저자 등 다양한 학술연구비 지원책을 마련해 교수진이 각종 학술연구를 의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를 지원해 세계 의료 환경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재학생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측면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학술대회 교내 개최, 교외연구과제 제안서 지원, 영문논문 교정 지원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명문 의대로 거듭나다

1978년 설립된 순천향대학 의과대학은 34년 역사를 자랑하며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서울, 부천, 천안, 구미 등 4개 부속병원은 3천500여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의사 3천여 명, 간호사 2천여 명을 배출한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 국내 의료산업의 성장을 견인해온 순천향대학교는 의과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 모든 부문에서 양적 ·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드웨어를 충실히 하고, 재학생들이 자기주도형 학습 등을 전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강화해 의료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교육과정 연구개발과 임상실습 교육시설을 보완해 교육의 품격을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재학생들의 의욕 고취를 통해 여타 의과대학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순천향대학은 또 최근 전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 윤리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의료계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의료 윤리가 의학교육의 한 부분으로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자기반성을 하고 있다.

이에 순천향대학교는 의료 윤리 교육에 중점을 둬, 순천향 정신인 인간 사랑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SCH

미니 인터뷰

김선주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시대가 요구하는 의료인 양성에 진력"

"의료교육 방향이 주입식에서 자기주도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의료인 양성에 모든 역량을 쏟아내겠다."

올해 1월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학장으로 취임한 김선주 교수는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한 의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순천향대학 의과대학은 최근 의사국가고시에서 29기 졸업생 전원이 합격하는 경사를 맞았다. 김 학장 입장에서는 이번 성과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제일 터. 그는 창의적 사고를 지닌 의료인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학장은 "임상교육 강화, 교수진 학술지원 등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지닌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이끌어 내 순천향대학 의과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주 학장은 향설의학시뮬레이션센터 등 훌륭한 하드웨어를 이용해 자기주도형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학 교육학 활성화에 매진할 방침이다. 또 최적의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임상실습과 관련된 교육시설을 보완 및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과 의학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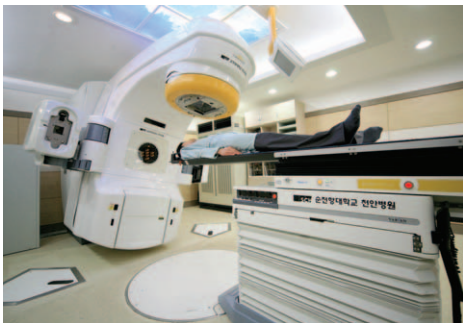
김 학장은 "서울, 부천, 천안, 구미 등 4개 부속병원은 최상의 임상교육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다양한 질환 및 치료 데이터는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교수진 역시 소화기 내시경, 소화기 등 각 분야에서 세계 의료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는 현대의학의 중심에서 재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는 의과전문대학원, 의과대학 등 이원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느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며 "의학교육이 사회정치적 흐름보다 교육적 논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향 의과대학은 의과대학제도 유지, 인성교육과 임상실습 교육 비중을 높이는 등 일률적이고 충실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미래의학의 꿈이 자란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간사랑 지역사랑' 30년

더 큰 선진 의료로 100년을 이어간다

30th ANNIVERSARY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HOSPITAL
1982~2012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1980년대 초만 해도 장항선 일대는 물론이고 충청권에는 각종 질병치료를 아우를 수 있는 이렇다 할 종합병원이 없었다.

1982년 7월 7일은 충청지역의 보건의료사에 큰 획을 그은 날이다. 천안병원의 등장으로 충청지역에 생명의 등불이 환하게 켜졌고, 의료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었기 때문이다. 천안병원은 비록 웅장한 규모는 아니었지만 어느 대형병원보다도 더욱 큰 지역사회의 기대와 환영 속에, 그렇게 출발 테이프를 끊을 수 있었다. 설립자인 故 향설 서석조 박사의 설립 이념인 '인간사랑'을 구현하기 위해 마침내

1982년 6월 11일 황량하기만 했던 봉명동 언덕에 현대식 종합병원이 준공되었다. 이어 1982년 6월 25일 병원개설 허가를 받고 공식적인 첫 진료를 시작했다. 허가병상 150병상으로 진료를 시작한 이듬해인 1983년 벌써 200병상을 증설, 350병상의 위용을 갖추는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갔다. '인간사랑' 실천을 통해 환자중심병원을 지향하는 30년 전통의 천안병원은 현재 140여 명의 정상급 교수진 등 1천 5백여 모든 천안병원 구성원들, 세계 최고 성능의 의료장비와 최첨단 시설들을 갖추고 최상의 전문 진료를 제공하는 중부권 No.1 상급종합병원(3차의료기관, 799병상)으로 성장했다.

순천향이 시작하고, 순천향에만 있는, 순천향이 가장 최고인 진료 분야는?

국내 유일 농약중독연구소, 충청 유일 조기폐암 진단 클리닉, 국내 최초 도입 오목가슴 교정 클리닉, 수술 없이 교정하는 새가슴 클리닉, 국내 최초 미숙아 발달검사 도입한 소아청소년 재활 클리닉, 환경부 지정 석면환경 보건센터, 충남도청과 충남 의료취약지역 진료를 책임지는 원격 영상진료 서비스, 국내 최고 권위의 수면 클리닉, 대학병원 최초 개설 대상포진 클리닉, 대학병원 최초 시작 무료 방문 암 강좌 등이 있다.

중부권 No.1 상급종합병원으로 최상의 전문 진료 펼친다

최상의 '암 치료'

국내외에서 높은 의학수준을 인정받은 암 치료전문 교수들은 긴밀한 협진시스템, 세계최고성능의 암 진단 및 치료기기들을 통해 암환자들에게 최상의 암 치료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 노발리스 티엑스

미국FDA가 공인한 최고의 방사선 암치료기로 서울 이남에서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만이 보유하고 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밀도(가로 0.1mm×세로 2.5mm까지 방사선 제어), 신속성(1회 방사선 조사 2분), 다기능성(모든 치료를 구현)을 갖추고 있으며, 전신에서 발생한 모든 암을 치료한다.

■ 128채널PET-CT

서울 이남에서 유일하게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만이 운영하고 있는 전신 암 진단기로서, 현존하는 PET-CT 중 가장 많은 채널 수와 가장 넓은 검사 시야를 지니고, 감마선을 받아들이는 성능이 제일 뛰어나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안전하게 암을 진단해낸다.

■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실

방사성 물질인 옥소를 이용해 갑상선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특수 병실로 충청권에 4병실이 있으며, 그 중 2병실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있다.

최상의 '응급환자 진료'

가장 이상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중부권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굳게 지키고 있다.

■ 256채널CT

중부권에서 유일하게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만이 보유한 세계 최고 성능의 CT다. 촬영속도가 현존 CT 중 가장 빠르고, 영상이 가장 선명해 심장 등 움직이는 장기와 혈관질환 진단에 매우 뛰어나 심장마비와 뇌졸중 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 움직임 제어가 안 되는 소아 및 노인 환자의 검사에도 매우 유용하다.

■ 미래형 응급의료센터

성인 응급실과 소아 응급실로 구분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가장 이상적인 미래형 응급의료센터다. 기능적으로 세분화된 진료공간과 최첨단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갖춘 최적의 응급환자 치료 시설이다.

■ 연중무휴 혈관 개통술 시행

혈관질환 진단에 있어서 세계 최고 성능의 256채널CT가 응급의료센터 공간 내에 위치해 있고, 심장 및 뇌혈관질환 24시간 연중무휴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갑자기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환자 치료의 진료 공백이 없다.

하버드의대도 인정한 소화기병센터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소화기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으로 위, 대장, 간, 췌담도 등 장기별 세분화된 진료가 이루어지며, 내시경을 이용한 조기위암수술과 진단복강경수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버드의대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시설 투자 통해 '환자 만족도' UP!

응급의료센터 · 신장센터 · 물리치료실…환자중심 새로운 의료서비스 선보여

부천병원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설로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말 있었던 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에 이어 올해 초 신장센터와 물리치료실을 차례로 확장하고 환자 중심의 세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롭게 바뀐 부천병원 시설들을 소개한다.

글 _ 편집부

응급의료센터, 중증환자를 위한 특별 시스템

새로워진 응급의료센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환자 상태에 따른 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우선 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즉시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한 후 중환자로 판정되면 중환구역에서 맞춤형 집중치료를 받는다.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라면 중증외상 환자 전담팀이 응급수술을 결정하고 수술에 들어간다. 이 모든 과정이 센터 도착 후 1시간 내에 이루어진다.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환자들을 위한 소생실도 중요한 구역이다. 근육, 혈관, 인대 등 연부조직이 손상된 환자의 경우 이곳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중증외상 및 심정지 환자 등 중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각종 처치도 이곳에서 이뤄진다.

키즈 클리닉은 어린이 응급환자를 위한 구역이다. 응급의료센터 내 다른 공간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면역이 약한 어린이 환자들의 감염 예방과 안정된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키즈 클리닉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해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산뜻한 컬러와 만화캐릭터로 꾸며 놀이공간처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밝고 친근한 인테리어를 통해 어린이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어린이들을 위해 만화영화도 상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센터를 이용하는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남녀구분 없이 이용해야 하는 응급의료센터의 특성상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배려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를 위해 개인별로 커튼을 설치하여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급한 순간을 맞이한 응급환자를 안타깝게 기다리는 보호자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대기실을 마련했다. 응급 환자들을 위해 애쓰는 119 구급대원들도 별도의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며 잠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외상특성화센터로 운영되어온 부천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중증외상 전담팀을 가동하여 각종 사고로 발생한 외상 환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외상처치술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을 위한 신속한 응급시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난 10년간 47만 여명에 달하는 응급환자들을 치료하며 쌓인 노하우가 고스란히 환자 진료에 적용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 : 032)621-5117~9

신장센터, 대기시간 줄이고 주간 투석은 늘리고

지난해 혈액투석 1등급 상급종합병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결과)에 선정된 부천병원 신장센터가 공간 확장을 통해 병상 수를 늘리는 한편 최신 혈액투석 장비를 도입해 투석 환자 치료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

신장센터의 규모가 기존의 423㎡에서 25% 확장된 561㎡로 넓어졌으며, 병상 수는 기존 25개에서 37개로 33% 증가했다. 병상 수 증가로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감소된 것은 물론, 보다 많은 환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투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4시간 이상 소요되는 투석을 주간에 진행함으로써 진료 후 일찍 귀가할 수 있다는 점도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한편 투석 장비는 환자들이 투석병원을 정할 때 가장 신중을 기하는 부분으로, 부천병원은 센터 확장과 함께 업그레이드된 혈액투석 인공신장기 FMC 5008S를 도입했다. 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 있어서도 강점을 가진 장비다. 환자들이 투석을 진행하는 동안 보호자들은 보통 보호자 대기실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보호자들을 위한 휴게실 역시 아늑한 분위기의 독립된 공간으로 꾸며 장시간 체류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FMC 5008S : 안전하고 효율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 혈액투석 인공신장기

■신장센터 : 032)621-5180

물리치료실, 통합 재활 서비스로 진정한 '맞춤 치료' 실현

부천병원 물리치료실은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통합 재활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각 환자별 맞춤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통합 재활 서비스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사회사업, 재활 간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함께 통합적으로 치료해 나가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최근 기존 327㎡ 규모에서 419㎡로 22%의 공간을 대대적으로 확장해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을 분리했다. 각종 물리적 방법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과 조용한 공간에서 집중 작업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을 구분해 진정한 맞춤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작업치료실 내에서도 치료실 등을 세분화해 좀 더 전문적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 **삼킴장애치료실(연하장애)** : 특정 장애로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증상으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고 전문 치료를 시행한다.

■ **소아작업치료실** : 발달에 장애를 보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발달을 촉진시켜 각 연령대에 요구되는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일상생활동작훈련실** :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 식사하기, 옷 입기, 화장실 가기, 위생 관리하기, 가정관리, 커뮤니케이션 기술, 건강 관리, 금전 관리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훈련한다.

■ **인지재활치료실** : 지각, 인지영역에 손상을 입은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인지치료 시스템을 통해 두뇌능력 향상 훈련을 시행한다.

■물리치료실 : 032)621-5281

입학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서 박사

하늘의 뜻 받들어 인술의 고향 만들다

서석조 박사 좌우명 한자로 옮긴 '순천향(順天鄕)'…김종필 전 총리 직접 현판 글씨 써

정리 _ 편집부

1968년, 삼성 이병철 회장의 후견으로 고려병원이 설립된다. 고려병원은 현재 강북삼성병원의 전신으로 100병상, 12개 진료과로 개원했다. 이때 서석조 박사는 자신이 경영하던 동은병원을 정리하고 고려병원 개원 과정에 참여했으며, 내과 부장으로 부임하여 1972년 백병원으로 옮길 때까지 부원장으로 재직했다.

서 박사가 고려병원에 합류한 이유는 일찍부터 이병철 회장과 교분을 쌓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삼성이 성균관대학교를 인수해서 의과대학을 신설할 예정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서 박사가 고려병원으로 옮기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의과대학 신설은 실현되지 않았다.

게다가 고려병원은 재단이 삼성그룹이라 재정이 탄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 박사가 의학을 연구하기에는 환경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 서 박사가 신청하는 연구 설비 제안서는 반려되기 일쑤였다. 원가를 계산하면 수지가 안 맞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병원 경영을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서 박사의 사고방식과 자본의 논리가 충돌했던 것이다.

의료의 질을 향상하려면 실력 있는 의사만으로는 불충분했다.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고 연구시설도 필요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며 서 박사는 병원만 가지고는 일류로 발전하는 길을 개척할 수 없다는 생각을 더 확고히 하게 된다.

첨단설비를 갖춘 현대식 종합병원 건설과,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 대학 설립, 이 두 가지 꿈을 이룰 때,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치료의 손길을 뻗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학계의 발전을 이끌고 민족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대충이 통하지 않는 완벽주의자

서석조 박사는 당대 최고의 신경내과의라는 명성을 누리고 있었으나 그것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동료나 후배, 제자로 서 수십 년 동안 의료현장에서 서 박사를 지켜봤던 의사들은 그가 의사로서 철저하고 완벽했음을 증언한다.

1960년대에 서 박사와 함께 성모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로 근무했던 김영 박사(김영내과 원장)는 그를 "대충이 통하지 않는" 의사였다고 회고한다. 하루에

40~50명씩이나 되는 환자들을 돌보는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의 상태나 병명을 일일이 기억하는 서 박사의 모습은 후배 의사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박사는 회진을 돌 때 가끔씩 스태프들 중 몇 사람을 지목하여 차트를 보지 않고 환자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보게 했다.

박사에게 배우고 있는 수련의들이야 언제 질문이 떨어질지 모르므로 밤새 차트를 뒤적이며 외우고 있었지만, 가르치는 입장인 스태프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다 뜬금없이 날아오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스태프가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니 스태프들은 역시 박사의 돌발질문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이다.

박사의 후학들은 항상 긴장을 풀지 않고 연구하는 태도가 몸에 배고,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현재 순천향중앙의료원의 명예의료원장인 김부성 박사에게도 차트에 얽힌 추억이 있다.

회진할 때 서 박사가 환자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바로바로 대답을 해야지 차트를 보며 어물거리면 즉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버렸다고 한다. 의사라면 자기가 맡은 환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박사의 가르침이었다. 그러한 가르침 덕분에 김부성 박사는 지금도 환자의 검사 수치를 거의 오차범위 안에서 외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대학의 학장과 재단의 이사장,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서석조 박사는 1990년까지 40여 년 동안 환자 진료를 쉰 적이 없다. 외래 및 입원 환자는 물론이고 왕진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항상 환자들과 함께 했다. 이는 환자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환자들이 서 박사를 신뢰하고 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부성 박사는 자신이 의료원장이란 보직을 맡으면서도 환자 진료를 쉬지 않은 것 역시 서 박사를 닮아가고자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총리 유럽 순방 동행에 교포들 환대

서 박사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도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김종필 총리는 나중에 서 박사가 순천향병원을 세울 때 박사의 평소 좌우명을 한문으로 옮긴 '순천향(順天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직접 현판까지 써주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김종필 씨가 총리가 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월남 파병군인들의 개선행사에 참석했다가 한파에 장시간 노출된 끝에 고열과 마비로 쓰러진 김 총리를 서 박사가 완치시킨 이후, 박사에 대한 총리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졌다.

총리의 유럽 순방에도 서 박사가 동행했는데, 그때 교포들이 국무총리보다 서 박사를 더 잘 알아보며 반겼다고 한다.

종이 한 장으로 만들어내는 무궁무진한 세상

서울병원 이현선 간호사, 뛰어난 손재주로 제2의 인생 꿈꿔

하얀 종이 위에 날카로운 칼이 '휙휙' 지나간다. 칼이 지나간 자리에 꽃이 피어나고 나비가 날아간다. 얇고 평평한 한 장의 종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는 순간이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이현선 간호사(중앙공급실)는 경력 10년이 훨씬 넘는 종이 공예가다. 한 장의 종이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그녀의 손길을 따라가 봤다.

글_ 정재학 사진_ 임운석

액자 속 새들이 마치 날아갈 듯 역동적이다. 붉은 꽃과 푸른 잎들도 막 피어난 것처럼 생생하다.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욱 놀랍다. 모든 것이 종이다! 종이를 접고, 자르고 말아서 만든 것들이다.

이현선 간호사(51)는 서울병원 내에서 '작가'로 통한다. 취미로 시작한 종이공예가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종이공예와 관련된 공모전에 출품해 각종 상을 휩쓸다시피 했다. 요즘은 주춤하지만 한 때 서울병원 내에 '종이공예회'라는 동아리를 결성, 30명 가까운 회원들에게 종이공예를 전수하기도 했다. 이 간호사의 종이공예 솜씨가 병원 내에 자자하게 알려지게 된 것은 2001년 서울병원 심장센터 개소 2주년 즈음이다.

"심장센터 권영주 교수님께서 우연히 제 작품을 보시고 좋다며 전시회를 열도록 해주셨어요.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글을 직접 적어 주시는 등 신경을 많이 써주셨죠." 그 덕분에 심장센터 개소 2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본관 2층과 별관 2층 연결통로에서 종이공예 작품 전시회를 여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병원 개원 기념식 등 병원 내 주요 행사 때마다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 전시회를 열곤 했다.

1천 마리 종이학으로 사랑 키워

20대 초반 친구들과 함께 해인사에 놀러갔을 때의 일이다. 스님께서 재미삼아 손금을 봐준다고 해서 손을 내밀었다. 스님은 손금을 한 번 휙 보더니만 대뜸 손재주가 많은 손이라고 말했다.

재주를 타고 났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천성적으로 뭔가 손으로 주물럭거리고,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초보 간호사 시절, 3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늦게 뭔가를 만든다고 부스럭거리는 바람에 동생과 언니로부터 핀잔을 듣기도 했다. 한창 연애하던 20대 초중반, 남자 친구와의 사이에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해준 것도 예쁜 유리병에 담긴 1천 마리의 종이학이었다. 그 종이학을 받았던 남자친구는 지금 이 간호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다.

병원 내에서 자신의 뛰어난 손재주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은 정신건강의학과에 잠깐 근무할 때였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사이코드라마나 음악공연 등을 통한 예술치료를 병행하는데 이 간호사도 환자들을 위해 뭔가 자신의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했다.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취미이자, 특기인 종이접기였다.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을 찾는 어린 환우들에게 종이로 신기한 것들을 접어주거나 접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어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무척 기쁘고 보람 있었습니다."

그런 기쁨도 잠시, 심장센터로 다시 발령이 나면서 어린 환우들과의 종이접기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자신이 접어 준 종이를 보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종이공예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종이접기협회에 등록해서 단계별로 과정을 배우고 자격을 취득했다. 재주도 뛰어났지만 노력도 남달랐다. 강의를 들을 때면 그냥 설명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종이 접는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모두 접어서 차곡차곡 스크랩을 해 나갔다. 같이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종이접기 강사도 이 간호사의 노력을 옆에서 지켜보고는 "나중에 반드시 강사 활동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칭찬했다.

종이접기의 모든 것을 마스터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자격증인 '지도사'를 취득하고 나서는 종이조각에 도전했다. 종이조각 분야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지도사 자격을 따내고 나자 이번에는 비즈공예에 도전했다.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많아지면 그만큼 종이공예로 표현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기 때문이다.

무한한 가능성 가진 종이공예만의 매력

개인적인 취미생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배운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것이 이 간호사의 생각이다. 요즘 유행하는 재능기부에도 관심이 많다. 간호사를 은퇴하고 난 후 제2의 인생은 어쩌면 종이공예와 함께 하는 삶이 될지도 모른다.

이 간호사가 주로 하고 있는 분야는 종이공예 중에서도 종이조각이다. 아무 종이라도 한 장만 있다면 그것이 꽃이 되기도 하고 나비로 태어나기도 한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종이공예의 매력이다. 아무 것도 없는 백지 한 장이 만들어내는 무궁무진한 세상. 앞으로 이 간호사가 만들어 낼 '종이 세상'이 무척이나 기대된다. SCH

병원 24시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신생아집중치료 충청지역센터

'엄지공주' 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

고위험 신생아들을 위한 희망의 보금자리

오명호 박사를 센터장으로 송준환, 한원호 두 명의 전문의와 이영임, 오희성 전공의 그리고 김애자 수간호사, 김숙기 주임간호사를 포함하여 37명의 간호사가 3교대로 24시간 365일 환자를 돌본다. 이곳 근무자는 휴일이 없다. 어쩌다 일요일에 좀 쉬려하면 호출이 와서 달려와야 하는 날도 많지만 작고 어린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글_ 전만수 사진_ 임운석

이미 30베드가 꽉 차있어 더 이상 입원 환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인근 지역의 환자가 대부분이지만 국내에 입소문이 나면서 전라도에서, 거제도에서, 경북에서, 경기도에서 미숙아 케어를 의뢰해 오기 때문이다. 본관 6층 분만실(Delivery Room)과 마주하고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eonatal Intensive Care Unit). 여느 중환자실과 마찬가지로 출입이 철저히 제한되며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손 세정과 가운 및 전용 슬리퍼 착용을 강제하고 있었다. 미숙상태와 장애의 경중 정도에 따라 1실과 2실로 구분되어 있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은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충청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이 줄고 있는 추세에 반하여 공격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을 확대 증설하고 치료율과 소생률을 꾸준히 높여 신뢰를 쌓은 결과다. 충청지역

❶ 담당의가 중증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❷ 링거주사를 실시하고 있다.

센터로 선정되어 병상확충 예산 15억 원을 보조받아 보육기(인큐베이터)도 20병상에서 30병상으로 확충했고 연면적도 128㎡에서 256㎡로 2배 확장했다.

"미숙아들은 전반적으로 고르지 못한 발달소견을 보이며, 정신지체, 뇌성마비 등 심각한 발달장애를 겪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망막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기출산으로 망막병증과 비뇨기계의 구조적 이상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미숙아들은 발달문제를 조기에 선별하고, 바르고 적절한 치료로 장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송준환 전문의는 "센터는 보육기에서부터 전문 아동재활의료진의 협진을 통해 재활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07:30 병실이 분주해졌다. 새벽 내내 조용하던 병실이 북적이더니 간호사들끼리 인수인계가 시작됐다. 물품이 카운트되고, 환자상태를 포함한 중요한 사안이 체크되어 후임자에게 전달된다. 미소만으로도 거개가 소통된다. 다행히 특이사항은 없다. 오늘 퇴원이 예정되어있는 김아리가 알기라도 하는 듯 자꾸 보챈다는 즐거운 전언이다. 인수받은 간호사는 가장 먼저 환자(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준다. 새로운 하루를 맞은 아침에 새 옷으로 단장시켜주는 절차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센서를 체크한다. 센서가 제대로 잘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잘못되어 있으면 교정하고 간호기록을 채워 나간다. 하루 3교대 때마다 대체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인수인계 시간은 가장 분주한 시간이지만 동료를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다.

11:00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들이 누워 잠을 잔다. 단독베드다. 미숙아들은 대체로 움직임이 없다. 그런데 유난히 발버둥을 치는 아기가 있어 다가갔다. 호흡이 곤란한지 입을 벌린 상태로 온몸을 뒤틀고 있었다. 관심을 보이자 간호사가 다가와 질문을 기다린다. 간호사가 보육기의 옆문을 열고 흐트러진 자세를 교정한다. 열린 문틈으로 "째재쟁…"우는 소리가 들린다. 소리는 작아도 절규하고 있었다. 주사기를 꽂아 불편한 양팔을 번갈아 들어 올리고 다리를 불규칙하게 수영하듯 허공에 발차기를 계속한다. 입안에도 뭔가를 꽂았다. 인공호흡호스다. 코부터 눈을 가린 상태라 그나마 열린 반쪽 얼굴은 일그러진 모습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쳐다보기가 민망했다. 이름표를 보았다. 전○○아기, 1200g, 2월 15일 출생, 29주(7개월 1주)만에 태어난 미숙아다. 부디 건강히 자라기를….

15:00 또 다시 병실이 분주해졌다. 2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가 부모들의 면회시간이다. 1실에 비해 상태가 비교적 나은 2실 미숙아들은 보자기에 싸여 바구니에 담긴 채 부모와 조우한다. 입구에 아기 4명이 일렬횡대로 누워있다. 유리창을 마주하고 부모들은 아기의 모든 것을 기억 속에 담으려는 듯 아기만을 응시하고 있다.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엄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저 발을 동동 구르는 듯한 원초적 모성의 표출이다. 안쓰럽다. 상태가 덜 좋은 1실의 경우는 인큐베이터 둘레에서 아기와 면회할 수 있다. 면회는 1주일에 5차례 허용된다. 과거에는 2차례만 허용하다가 최근에 확대했다. 환자보다 더 절박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 치료를 위한 센터의 배려다.

❶ 소독한 젖병에 분유를 타고 있다.
❷ 신생아실 격리실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
❸ 아기들 마다 주사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❹ 우는 아기 달래기.

인공폐계면활성제 분야의 개척자, 충청지역센터장 **오명호** 교수

"우리 병원 식구들 모두의 공입니다"

신생아학 전문의로 소아청소년과 과장과 임상의학연구소장을 겸하고 있다. 천안병원에 신생아집중치료 충청지역센터(Neonatal Intensive Care Unit)가 만들어지도록 힘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다. 모두들 서울로 가려고 하지만 묵묵히 지방에 남아 고 위험성 신생아를 마다하지 않고 모두 받아서 밤낮으로 돌보다보니 신뢰가 쌓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을 "병원 식구들 모두의 공"으로 돌린다. 오명호 박사는 '인공폐계면활성제' 분야의 개척자다. 미숙아는 발달장애로 허파꽈리 부분에 문제가 있는 상태다.

동물의 폐에서 추출 정제하여 약으로 만들어 폐에 직접 투입하는 주사액이 인공폐계면활성제다. 세계 최초 개발자의 한사람인 후지와라 박사로부터 전수받고 미국에서 관련연구를 지속한 국내 선구자이다.

16:00 2실에서 아기와 면회를 마친 조나단(가명)의 엄마 키다(가명)를 만났다. 조나단의 부모는 네팔인으로 유학생 부부다. "아기를 만나니 기분이 좋아요?" "예" 환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말을 잘 못해서…" 남편에게 휴대전화로 연결하여 바꿔준다. (이하 조나단의 아빠)"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복잡했는데. 앞으로 수술이 남아있지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툰 우리말에 구구절절 고마움이 녹아 있었다. 외국인이라 국가지원대상도 아니어서 치료비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새생명나눔재단' 등과 협조하여 해결해 주었다. 조나단은 2011년 12월 19일 31주 1.8kg의 미숙아로 태어나 엄마의 품에 안기기도 전에 몇 차례의 응급수술을 거쳤으며 한차례의 추가 수술이 예정되어있다.

24:00 나이트팀 인수인계가 끝나자 상태 체크가 끝난 아기로부터 목욕이 시작되었다. 딱히 보통 2명이 짝을 이뤄 실행한다. 여기저기서 칭얼대는 소리가 들린다. 불편하다는 반응이다. 목욕은 나이트근무자의 몫이다. 대체로 24~02시 사이에 목욕이 끝나고 나면 하루 8번, 3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수유가 시작된다.

미니 인터뷰

언제나 듬직한 얼굴로 미숙아 돌보는 **송준환** 신생아전담전문의

"700g 미숙아 퇴원 땐 참 고마웠어요"

1실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미숙아의 초음파 진단을 하고 있는 송준환 전문의에게 김숙기 주임간호사가 다가와 뭔가 상의를 하기 시작한다. 긴박감이 감돈다. 미숙아 망막증 환자가 건양대에서 출발했다는 연락이다. 레이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레이저 치료기기의 고장으로 긴급 협진을 요청 받았다는 것이다. 거시적으로는 경쟁관계이면서도 의료진끼리의 네트워크로 진정한 인술(仁術)이 펼쳐지고 있었다. 센터 근무에 긴장은 필요하지만 위급상황에 흥분하면 안 된다.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게 중요하다. 최저체중 미숙아치료 경험을 물었다. "26주, 700g 출생 미숙아가 살아서 퇴원한 적이 있어요. 참 고마운 경우죠. 후유 장애가 조금 있어서 청소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봐야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만 그 만큼 반응을 보이니까 피곤해도 보람을 느낀다. "초미숙아를 살리는 것 못지않게 살아있는 아기를 건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1993년부터 천안병원 근무한 베테랑 **김숙기** 주임간호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긍심을 가져요"

2008년부터 신생아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1993년부터 천안병원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지만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단다. 신생아 중환자실인 이곳은 간호사의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애기들은 모든 표현을 우는 것으로 하잖아요.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꼼꼼하고 섬세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차단노력과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김 주임간호사는 고강도의 '간호윤리'가 요구되는 부서라고 힘주어 말한다. "임신주기를 다 채워 출산했는데도 난산으로 배변을 흡입한다든가 양수가 터져 기도로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나 개인병원 등의 열악한 시설로 응급조치가 늦어져 뇌성마비나 발달장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와 종종 맞부딪힐 때는 너무 속상해요." 초특소저체중아(1kg미만)가 100일 넘게 입원치료를 해서 건강하게 퇴원할 때 크게 보람을 느낀단다. "백일을 이곳에서 맞는 경우 병동에서는 대개 내의 등을 사주고 엄마가 떡을 해오곤 하지요." 연고 없는 아기를 퇴원시켜 입양기관으로 보낼 때는 마음이 짠하다는 김숙기 주임간호사. "갠 날과 흐린 날이 교차 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긍심을 갖지요."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생아집중치료 충청지역센터 개소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은 신생아집중치료시설 조성공사를 마치고 2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병원이 2011년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조성한 신생아전문치료 지역거점시설을 말하며, 특히 2.5kg미만의 미숙아와 심장병 등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 치료한다.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공기 감염까지 원천 차단한 시설이며, 격리병상 4병상 등을 포함해 총 30병상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최신 심장 및 뇌 초음파진단기와 신생아 뇌기능 검사기, 선택적 두부 저체온 치료기, 미숙아 및 신생아 전용 초정밀 인공호흡기 10대 등 진단 및 치료 장비들을 완벽하게 구비했으며, 신생아질환 전문의 3명과 간호사 37명이 상주하며 환자들을 24시간 365일 철저히 보살핀다.

병원은 2월 27일 오후 6시 서교일 이사장과 이문수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문수 병원장은 "소아전용응급센터에 이어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갖추어 전국 최고의 신생아 및 소아환자 치료환경이 갖춰졌다"면서, "최고의 하드웨어에 걸맞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시 노력하겠다"는 말로 센터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를 피력했다.

혈관 속 문제아 '피떡', 어떻게 잡을까?

혈전 클리닉, 혈전으로 인한 모든 질환 예방에서 치료까지

글 _ 김양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혈액은 물과 같이 유연한 상태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생겨난 노폐물을 운반, 처리하여 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순환]. 상처로 인해 출혈이 생기면 혈액 내의 혈소판과 응고인자들은 혈관 내에서 핏덩이가 형성되어 지혈이 되게 된다[응고]. 혈관 손상 후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혈관내피세포가 완전히 복구(repair)되어 형성된 핏덩이는 플라스민이라는 효소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어 혈액 순환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용해]. 이와 같이 인체 내에서는 혈액 응고와 용해가 적절히 조절되어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출혈 또는 혈전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혈액 응고 과정이 너무 과하거나, 용해 과정이 부족하면 혈전성 질환이 생기게 된다.

'혈전(血栓)(thrombus, blood clot)'은 혈관 내에 생겨 용해되지 않은 핏덩이를 말하며, 혈전이 만들어진 부위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혈관을 막을 때 '색전(塞栓)(Emboli, blocking of blood vessel)'이라고 한다.

혈전질환은 어디에서 혈전이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동맥혈전질환과 정맥혈전질환으로 나뉘게 된다. 대표적인 동맥혈전질환은 심근경색, 뇌경색이 있고, 정맥혈전질환은 폐색전증, 폐경색, 심부정맥혈전증이 있다.

혈전 클리닉에선 어떤 일 하나

'혈전 클리닉'은 혈전(피떡)으로 인한 모든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관리에서 예방까지 혈전에 관련된 모든 영역을 다루는 새로운 개념의 임상 분야이다. 혈전질환의 특징은 여러 질환의 한 합병증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 의학적 지식은 전문가적 수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접하는 개념은 아니다.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한 환자의 몸에서 시기에 따라 동맥 또는 정맥 혈전이 발생하기도 하며 때로는 동맥 및 정맥 혈전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여 혈전질환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하는 전문가들의 협의체가 필수적이다. 본원의 혈전 클리닉은 화려한 외관을 갖추지는 않았다. 그러나 혈전 전문가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의 진료를 위해 노력을 하다가도 진료협력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면 함께 논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환자중심형 클리닉'을 지향하고 있다.

협력에 대한 흔한 예로 출혈성 경향을 가지는 항혈소판제(예 아스피린) 혹은 항응고제(예 와파린) 복용 중인 환자가 시술 혹은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치료약제를 중단함으로써 감당해야 할 '혈전합병증'의 위험과 출혈경향 약제를 복용함으로

써 발생할 수 있는 '출혈합병증'의 위험도를 평가해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진료과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뇌졸중, 심근경색, 폐색전증 등 기본 진료 기능 이외에도 혈전 클리닉의 주요 역할을 보면,

[사례 1]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한 환자가 내원 3일 후 호흡 곤란을 호소하여 '폐색전증'을 진단받았다. 혈전과 출혈이 동시에 나타난 이 경우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뇌출혈의 중증도와 폐색전증의 중증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관찰, 감량투여 등).

[사례 2] 아스피린과 와파린을 복용 중인 환자가 대장 용종절제술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권고해야 할까?

▶ 출혈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시술에 해당되므로 혈전합병증 발생 위험도에 따라 작용시간이 짧은 약제로 교체(고위험)하거나 중단(저위험)한다.

[사례 3] 엉덩이 관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려고 한다. 혈전예방요법을 시행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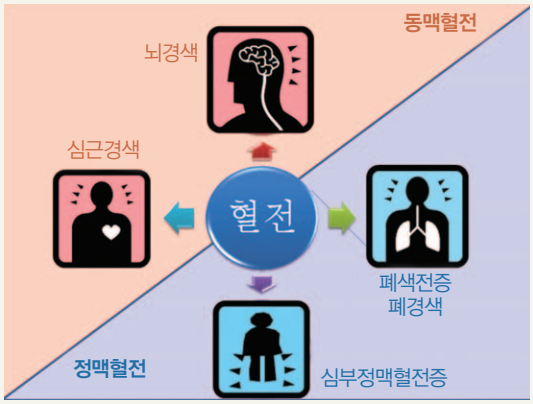
▶ 혈전 발생률이 높으므로 항응고제를 수술 (전)후 투여해 혈전을 예방해야 한다.

등록 환자 300여명 대부분 완치

정맥혈전증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혈전 클리닉에 등록된 환자는 300여명으로 대부분은 완치되었고 일부는 지속적인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현재까지 관리를 받고 있다.

혈전 클리닉은 혈전질환을 신속하게 발견(진단) 하는 것 외에도 치료나 관리에 필요한 1) 와파린의 용량조절과 질적관리 2) 현장검사(POCT: point-of-care test)를 통한 맞춤형 치료 3) 수술 혹은 시술 전후 항응고제 조절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고 1)혈전용해치료의 효과와 안전성 2)혈전발생 고위험군의 혈전예방요법 효과와 안전성 3)의료용 압박스타킹의 적절성, 4) 새롭게 출시되었거나 출시될 예정인 항응고제 신약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되는 의학적인 근거를 규명하고 있으며 그 결과들을 관련학회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우리 몸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 혈전



혈전 클리닉의 다양한 의료진들

각 장기별로 혈전질환에 경험이 많은 다양한 분과의 의료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김양기 교수, 신경과 이경복 교수, 심장내과 방덕원 교수, 박병원 교수, 혈액종양내과 김경하 교수, 정형외과 서유성 교수, 최형석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박노진 교수와 혈전 클리닉 황미옥 전담간호사가 있다.

고령화 시대, 혈전질환은 계속된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혈전질환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혈전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혈전질환에 대해 세부 전공으로 특화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의료진이 많이 부족하다. 하늘의 뜻을 따라 서울, 부천, 천안, 구미의 네 고향에서 인술을 펼치고자 노력하는 순천향대학교는 점진적으로 혈전 전문가를 배치하여 늘어가는 의학적인 필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012년 6월 12일에는 제1회 혈전환자에 대한 간호사 보수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나아가 진료의사들을 대상으로 혈전질환에 대한 연수강좌를 계획하고 있다. SCH

김성호 구미병원 신경외과 교수

경동맥협착증 미리 치료하면, 오는 뇌경색 막을 수 있다

요골동맥을 이용한 경동맥 스텐트삽입술 성공

최근 뇌경색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뇌경색증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들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 들 위험인자에 대한 예방적 치료가 중요하다. 물론 뇌경색증 발생 6시간 이내에 치료(혈전용해술)가 이루어지면 좋은 치료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글_ 편집부

뇌경색의 위험 인자 중 경동맥 협착증은 뇌경색증 발생의 10~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경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뇌로 보내주는 중요한 혈관이다. 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것을 경동맥협착증이라 한다.
경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거나 침착되어 있던 혈전이 날라가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경동맥은 절반 이상이 막혀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협착의 경우에도 연간 3~4%는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MRA나 CTA로 비교적 간단한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이 가능해 이에 대한 치료가 대두되고 있다. 우선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고위험 군에서는 혈관의 재건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수술적 치료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칼을 대지 않고 하는 혈관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이 각광받고 있다. 이는 국소 마취하 혈관 안에서 풍선을 이용하여 협착된 혈관을 확장 시킨 후 다시 협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금으로 이루어진 원통 모양의 스텐트를 혈관 안에 삽입 시키는 시술이다. 국소 마취로 시행되고 회복 기간도 빨라 최근 환자들은 수술적 치료 보다는 이러한 시술을 선호 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퇴 동맥을 천자하여 카테터를 동맥 안으로 삽입하여 이를 통해 시술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퇴 동맥을 천자 했을 경우 시술을 마친 후에는 지혈을 위해 환자가 6-8시간을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요골 동맥(앞팔의 바깥쪽을 통하는 혈관)을 천자하여 시술을 시행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 시에는 시술에 필요한 기구들이 부피가

요골 동맥을 이용한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크고 요골동맥에서 경동맥으로 이어지는 혈관의 경로가 단순하지 않아 요골 동맥을 통한 시술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에 대한 보고가 많지 않으며 국내에서는 전무하다.

50세 남자 환자로 좌측 중대뇌 동맥 뇌경색증으로 구미병원에 내원하였다. 시행한 검사 상 뇌경색증을 유발한 요인으로 극심한 경동맥 협착증이 진단됐다.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계획되었으나 양측의 장골 동맥이 폐색되는 leriche's syndrome이 동반되어 일반적인 방법인 대퇴동맥을 이용한 시술이 불가능하게 됐다.
수술치료가 불가피 했으나 환자가 수술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시술을 강력히 요구하여 구미병원 신경외과 김성호 교수는 팔에 있는 요골 동맥을 이용한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도했다. 어려운 도전이었으나 시술은 성공적이었다.

김성호 교수의 요골동맥을 이용한 시술 방법은 2010년도 대한신경외과 추계학회에 발표되어 한층 더 발전된 비침습적 치료 방향을 제시했다. SCH

임한혁 교수
1961년 대전 출생,
순천향대학교 의학박사
박사학위논문/경피적 세침흡인술 후
발생하는 폐기흉을 예방하기 위한
실험동물연구
1995~ :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근무
2000~ 2007 : 의료봉사단장
2004 : 보령의료봉사상
2005 : MBC 봉사대상

임한혁

꼼꼼한 흉부 방사선 검사 "유방암, 너 꼼짝 마!"

1cm 미만 초기암 진단 능력 독보적인 임한혁 구미병원 교수

임 교수는 17년 동안 구미병원에서 흉부 · 유방 방사선학 전문의로 재직하며 4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직접 진단했다. 특히 1cm 미만의 초기암 진단에서 독보적이다. 2000년부터는 의료봉사단장으로 활동했으며, 나눔의 가치를 직접 실천해왔다. 그러한 나눔 활동을 통해서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을 새롭게 새기게 됐다.

글_ 전만수 사진_ 임운석

인공적 꾸밈이 없이 적당히 어질러져 있는 공간.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포근하고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임한혁 교수를 만났다. 작달막한 키에 적당히 까무잡잡한 피부, 유행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소박한 옷차림이 마음씨 좋은 시골학교 교장선생님을 떠올리게 했다.

중학교시절 가족들과 함께 소록도에 간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환자들 속에 계신 의사선생님을 발견하고 나도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었고 의사가 됐다. 구미병원에 근무하면서 어렸을 때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서 재주 병원장님(구미병원 3대~8대 병원장)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

임한혁 교수는 1995년부터 17년 동안 구미병원 영상학과에서 흉부 · 유방 방사선학 전문의로 일해 왔다. 흉부방사선 진단을 통해 암이 의심스러운 환자들에게 컴퓨터 검사와 확진을 위한 흉부 세침검사를 시행하여 확진하는 것이 임 교수의 주요 임무다. 1년에 100회 정도 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임 교수는 유방과 흉부에 집중한 공력으로 초기암(보통 1cm 미만의 종양) 진단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0년째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당일 진료로 유방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1년에 2천500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임 교수로부터 검진을 받은 누적 인원만 4만 명이 넘는다. 구미시 성인 여성의 5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다.

"유방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만 하면 완치율이 높죠. 첨단 기기가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어 갈수록 완치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여성들이 유방암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임 교수는 매주 목요일 5시면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병리과 의사가 참가하는 '집담회(Conference)'를 열고 있다. 올해로 벌써 15년째다.

"영상의학과 의사는 임상의사의 서포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관계인데 그래서 임상의사들의 요구와 의견을 1순위로 수용하죠."

임 교수는 병원 내 소통의 중요성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구미병원에 재직하는 동문 중 가장 선배로 후배들에 대한 책임도 무겁다. 이 때문에 후배들과의 친화에도 남다르게 신경을 쓴다. 개인적인 카운슬러 역할도 마다하지 않아서 인지 임 교수의 방은 언제나 후배 의사들이 북적이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요즘은 골프회와 조우회(낚시) 회장을 맡아서 또 다른 방식의 '소통'에도 열심이다.

의료봉사하며 '역지사지' 정신 마음에 새겨

의료봉사단장으로 지역의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보령의료봉사상(2004), MBC봉사대상(2005) 등 과분한 상도 받았다. MBC에서는 순천향대 구미병원 의료봉사단에서 모티브를 얻어

〈눈을 떠요〉와 〈산 넘고 물 넘어〉라는 프로그램을 2년 동안 방영하기도 했는데 개그맨 김제동의 사회로 시골을 찾아다니며 의료 봉사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었다.

무의촌이 거의 사라진 요즘에는 공단의 특성을 살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의료봉사에 치중하고 있다. 베트남에 봉사단의 일원으로 해외 의료봉사를 다녀오기도 했다. "봉사는 사회적 기여의 보편적 의무"라는 것이 임 교수의 생각이다.

"그동안 '인자무적(仁者無敵)'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봉사단장 등 보직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많이 느꼈어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2010년부터는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을 새롭게 가슴에 새겼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자는 것이죠."

봉사단장을 그만둔 후부터는 독서에 집중했다. 독서를 하면서 중요한 구절을 메모해서 동료, 후배들과 이메일로 나누는 기쁨도 가졌다. 하버드연구소에서 발간한 〈행복한 인생을 결정하는 7가지 조건〉이라는 책을 특히 감명 깊게 읽었다.

"70년 동안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책으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교훈과 혜안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정원을 가꾸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최근 농가주택을 구입해서 텃밭과 정원을 가꾸고 있다. 가끔은 동료와 후배들을 불러 바비큐 파티도 갖는다고.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그는 더 좋은 의사가 된 듯하다. 하지만 '명의(名醫)'라는 말에는 손사래를 친다.

"그저 지역 병원에서 환자를 친절하게 보려는 평범한 의사입니다. 조금 더 성의껏 진료하는 것뿐이죠." 명의란 원래 인술(仁術)을 펼치는 의사를 일컫는 말이다. 물론 시대에 따라 명의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인간관계로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의사라면 이 시대의 '명의'라고 부르는데 조금의 손색도 없지 않을까?

소리 없이 찾아와 생명을 빼앗는 '간암'

술 많이 마시면 발병률 6배까지 높아져

글 _ 김홍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문의처 _ 041-570-2137

초기 간암은 증상이 거의 없고 서서히 발생하며 뚜렷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병기가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간암은 사망률이 높으며 애주가의 간암 발병률은 높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최고 6배까지 높다. 술은 알코올성 간질환을 일으켜 간경변을 거쳐 간암에 이르게 하는데,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가 술을 마시면 간병변도 더 잘생기고 간암도 더 많이 생긴다.

주요 원인은 B형 간염

간암 환자의 약 60%가 B형 간염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출발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경우이고, 나머지는 기타 만성 간질환과 다양한 원인이거나 잘 모르는 경우이다. 어떤 원인이든 일단 간경변이 되면 간암이 생기기 쉽다. 간암 환자 중 60~90%는 간경변 환자에서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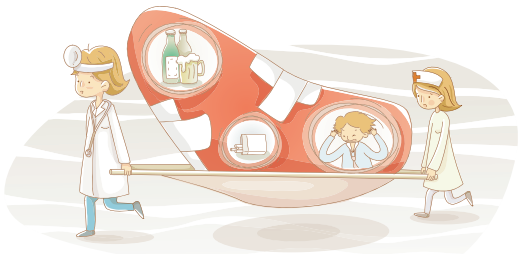
간암은 대개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만성 B형 간염환자의 경우 50세 경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C형 간염에서는 60세 이후에 최고치를 보인다. 따라서 만성 간질환이 있고 40대 이후라면 간암의 조기 발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간암은 조기에 진단해 근치수술을 시행하면 대부분 환자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간암의 치료법으로는 간절제술, 간이식 그리고 고주파 열치료법, 간동맥 화학 색전술, 경피적 무수알코올 주입요법 등 비수술적 치료방법들이 있다. 간암의 근본적 치료는 수술로 절제해내는 것이다. 간암의 크기가 작고, 한 쪽으로 치우쳐 있고, 남은 부위의 기능이 어지간하다면 수술이 가능하다.

간암 예방, B형 간염 예방 백신부터

적절한 음주와 체중관리는 기본이고, 또 아래와 같은 간암 발생 위험원인들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다. 우선 B형 간염 예방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 C형 간염 예방 백신은 아직 없다. C형 간염은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므로 주사기를 통해 서로 마약을 주사하거나 문신을 한다든지 불건전한 성생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성 간염 환자들은 필요시 적극적인 치료로 간염 악화를 막고 건강보조 식품과 생약의 오남용을 금해야 한다.

간암의 위험원인을 갖고 있는 만성 간염 또는 간경변 환자들은 최소 3~6개월마다 병원을 찾아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 혹은 CT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과거에는 혈액검사만 주기적으로 실시했지만, 혈액검사 단독으로는 간암의 조기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초음파 검사나 CT검사와 동반될 때 조기진단이 용이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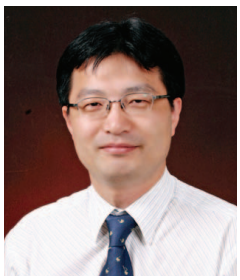
간암의 자가진단

- 가슴에 거미 모양의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
- 눈의 흰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보인다.
- 피로와 전신 쇠약감을 느낀다.
- 구역, 구토, 식욕 감퇴가 있다.
- 갑자기 체중이 준다.
- 오른쪽 옆구리나 늑골이 아프거나 붓는다.
- 콧등이나 코 주위의 혈관이 드러난다.
- 손톱이 치솟거나 잘 깨지고 색이 하얗다.
- 몸이 가렵다.
- 오줌 색이 진해지거나 빨갛다.
- 성욕감퇴나 성기능장애가 온다.
- 코피가 잘 난다.

※ 위 항목에서 5가지 이상 '예'라는 답변이 나올 경우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

‘신장’ 질환이 ‘심장’ 질환 된다

평소 심질환 예방위해 노력해야



글_박무용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장내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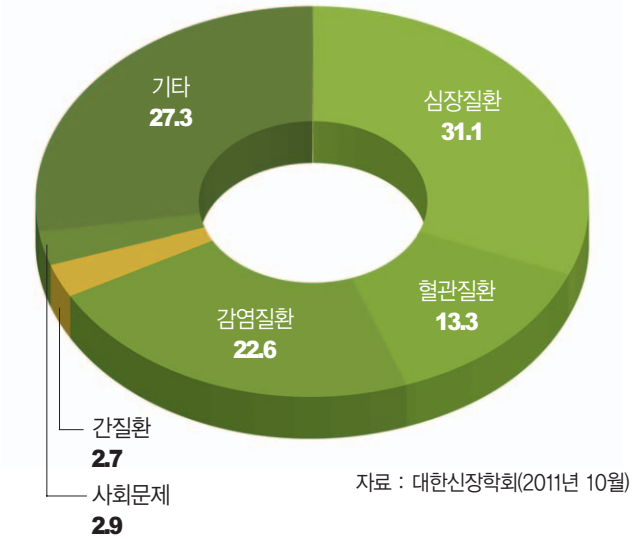
박미자(45세, 가명) 씨는 최근 심장발작을 일으켜 급하게 응급실로 후송됐다. 평소에도 운동을 하다보면 남들 보다 쉽게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냈었다고 한다. 그런데 박 씨는 뜻밖에도 4년 전 심장질환이 아닌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였다. 신장질환이 아닌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박 씨, 그녀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만성 콩팥병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는 약 600만 명. 대략 9명 중 1명(2010년 기준)이 만성 콩팥병에 걸리는 셈이다. 이 중 6만 명이 투석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관 손상으로 이어져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만성 콩팥병 환자의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질환! 만성 콩팥병 환자, 특히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 심혈관 질환에 걸렸을 경우 일반인 대비 사망률이 무려 2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콩팥병 환자들이 심혈관 질환에 잘 걸리는 이유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여러가지이다. 첫째, 체내에 축적된 다량의 수분과 염분이 심장 및 혈관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가 상해를 입어 이른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염증 반응이 늘면서 혈관 내막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층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셋째, 만성 콩팥병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사구체 여과율(신장이 일정 시간 동안 특정 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콩팥에서 생산되는 조혈 호르몬 분비가 감소된다. 이는 빈혈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빈혈은 또 심장의 비대화를 촉진시켜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

■ 만성 콩팥 병 환자 주요 사망 원인(2010년) 단위 %



자료 : 대한신장학회(2011년 10월)

마지막으로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질수록 혈관, 특히 관상동맥이 빠르게 굳는 ‘석회화’ 증상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경우 심장질환을 발생시키는데 전통적 위험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발병 빈도가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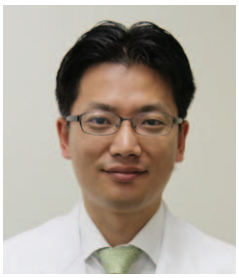
따라서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장질환 검사법은 매우 다양하다. 심전도 검사, 운동부하 검사, 심장동위원소스캔 검사를 이용한 동위원소 검사 등이다. 최근에는 관상동맥 질환 진단에 심장 CT를 시행하는 것이 보편화 됐으며 정확도가 매우 향상돼 일부 환자의 경우 심혈관 조영술을 대체하기도 한다. 그러나 심혈관 조영술과 마찬가지로 심장 CT검사 역시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검사해야 한다.

이처럼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고 사망률도 높은 반면 관상동맥 질환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진단해 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무엇보다 평소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의 철저한 관리를 비롯해 규칙적 운동, 꾸준한 식이관리, 적절한 약물 복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빈혈이나 혈중 인, 칼슘의 불균형 등 만성 콩팥병으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바야흐로 이사의 계절이다. 새로운 곳에서 둥지를 트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가득할 터. 집 주변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이사에 앞서 집의 상태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노약자나 알레르기에 민감한 가족이 있다면 이사에 대해 더욱 심사숙고해야 한다. '새집증후군' 남의 집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 우리 집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봄 이사철 '새집증후군' 조심하세요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하고 '베이크아웃' 해야



글_ 조성용 구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새집이나 수리한 집으로 이사한 후 이전에 없었던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성 질환 또는 눈, 코, 목의 자극 및 두통 등의 자극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or Sick Building Syndrome)'이라 한다. 2004년 5월부터 정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신설하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의 권고 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 물질로는 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이 있는데, 건물의 신축, 보수에 사용되는 페인트, 절연제, 접착제, 바닥재 등의 건축자재나 가구 등에서 주로 방출된다.

새집증후군 아토피에 치명적!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특히 주거환경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오염물질	권고기준 (㎍/m3 이하)	발생원	건강영향
포름알데히드	210	단열재, 갑종 합판, 보드, 가구, 접착제, 생활용품 등	–인체 발암성확인물질 혹은 추정물질 –눈, 코, 목 등의 자극증상, 호흡곤란, 천식, 두통 –피부질환 및 알레르기 증상 악화 가능
벤젠	30	건축재료, 세탁용제, 페인트, 살충제 등	–인체 발암성 확인물질 –호흡기도, 피부, 눈에 자극 –혈액계 및 면역계, 중추신경계통 억제 등의 건강영향
톨루엔	1,000	건축재료, 페인트, 페인트 제거제 등	–호흡기도, 피부, 눈에 자극을 주며, 중추신경계통 억제
에틸벤젠	360	담배연기, 자동차배출가스	–호흡기도, 피부, 눈에 자극을 주며, 중추신경계통 억제 –호흡기계 이상, 피부질환 및 알레르기 증상 악화 가능
자일렌	700	접착제, 페인트	–호흡기도, 피부, 눈에 자극을 주며, 중추신경계통 억제 –톨루엔과 비슷한 영향
스티렌	300	접착제, 주방랩, 플라스틱필름,	–호흡기도, 피부, 눈에 자극을 주며, 중추신경계통 억제 –장기간 노출 시 신경, 신장, 간에 영향을 줌

하는 것에 속하는데, 새집증후군이 아토피에 치명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최근 새집에 헌 침구 등을 그대로 들이거나, 새 가구를 들이는 경우 새집증후군과 헌집증후군이 결합되며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피부질환에 더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아토피 피부염 발현 유전 인자를 갖고 있는 생쥐에게 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를 흡입시키고 동시에 헌 침구류 등에서 발생하는 집먼지 진드기로 피부에 자극을 준 결과 아토피 피부염 증상 발현의 주요 지표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헌집증후군은 오래된 집에서 발생하는 곰팡이와 세균, 집먼지 진드기 등의 오염물질에 의해 생기며 모두 아토피 피부염에 치명적이다.

새집증후군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법

▲입주 직전 2~3일간 가구, 수납장의 문을 모두 열고, 창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난방을 5~6시간 한 후, 환기를 시키는 이른바 베이킹 아웃(Baking out)을 실시한다. 모든 문을 닫았다가 일정 시간 뒤 현관문까지 모두 여는 것을 반복한다.
입주 후에도 하루 30분 이상 세 차례 정도 환기시킨다.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다. 특히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습도와 온도가 올라갈수록 방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나친 난방 및 가습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18~21℃, 습도는 30~40%를 유지하도록 한다.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가구나 건축자재를 사용한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각종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방향제나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한다. ▲공기청정기를 이용하거나, 입이 넓은 녹색식물을 키운다.
2008년 12월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포름알데히드는 톨루엔, 에틸벤젠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분해 속도가 느리며, 계절에 따른 온·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으로 인하여 입주 1년 후 여름철에 측정한 농도가 초기 농도의 약 80%까지 증가한다고 하였다. 새집증후군은 입주 후 1~2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야 하며,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SCH

'야동' 즐겨보는 우리 아들, 혹시 관음증?

글 _ 나경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주부 박말자 씨(43세, 가명)는 시험 공부하는 중학교 1학년 아들에게 다과를 가져다주려고 방문을 열다가 노트북을 후다닥 닫는 아들을 목격했다. 모르는 척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고 나왔지만 뭔가 찜찜했던 박 씨는 아들이 학교에 간 후 조심스럽게 아들의 노트북을 살펴봤다. 걱정한 대로 노트북에는 소위 말하는 '야동(야한 성인물 동영상)'이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벌써부터 야동에 빠져있는 우리 아들이 혹시 관음증은 아닐지 가슴이 철렁하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A양 동영상 파문으로 인해 '관음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단순히 야한 동영상을 본다거나, 연예인 동영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관음증이라 할 수 없다. 관음증이란 성도착증의 일종으로 옷을 벗거나 성행위 중에 있는 상대방을 보면서 성적으로 흥분하는 행동을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하며,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르는 것으로 단순히 남몰래 다른 사람 혹은 이성의 은밀한 사생활을 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관음증은 15세 이전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해 적절히 치료해주지 않을 경우 인격 형성에 영향을 끼쳐 평생 지속될 수도 있는 질환이므로 1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가 이상행동을 보일 때 한 번쯤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관음증에 걸리나?

관음증은 거의 100% 남자에게서만 발현된다. 현재까지 관음증을 포함한 성도착 증세들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실시됐으나 어떤 사람이 성도착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은 없다. 다만 성도착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양육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가설이 설득을 얻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 생후 6개월부터 2년 사이에 분리개별화 과정을 거치며 어머니가 아닌 '나' 로서 독립적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충분한 사랑과 지지가 부족한 아이들은 심리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어머니에 대한 적개심과 더불어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대체할 다른 행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는데, 성도착증 환자들은 바로 성적 행위 및 이에 동반되는 쾌감으로부터 일시적인 만족과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중에서도 부끄러움이 많고 내향적이며 위축된 성격의 아이들은 더욱 은밀하고 수동적인 행위인 관음증에 빠지게 된다. 상대에게 들키지 않고 나 혼자 바라보며 성적인 충동과 쾌감을 느끼며, 그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상대를 일방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그 상대를 소유하고 정복한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느낀다. 즉, 관음증을 통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왜소하고 초라한 현실을 위대한 성적인 판타지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음증은 내면의 열등감이나 분노 등이 자극될 만한 상황에서 더욱 자주 나타나게 된다.

관음증이 진단될 정도의 시기에는 이미 성도착증 행위를 통한 심리적 보상이 한 개인의 정체성에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어 치료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인지행동치료, 정신분석치료, 약물치료(성욕 감퇴제) 등의 치료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효과가 뛰어난 것은 아니다. 치료 후 일정 기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 보면 다시 관음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본인의 노력과 더불어 주변의 격려 속에서 지속적으로 정신의학적 면담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관음증 척도

출처 :『Voyeurism Scale』Freund, Watson, & Rienzo, 1988

1 직접 성관계하는 것보다 이성이 벗고 있는 모습을 몰래 보는 것에 더 강한 성적 욕구를 느끼는가?
①이성이 혼자 벗고 있는 모습(1) ②사람들이 서로 애무하는 모습(1)
③사람들이 성교하는 모습(1) ④없다(0)

2 다른 사람들이 옷을 벗은 모습이나 성교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면서 자위 및 사정한 적이 있는가?
①예(1) ②아니오(0)

3 다른 사람들의 성관계 혹은 벗고 있는 모습을 다시 떠올리면서 자위한 적이 있는가?
①예(1) ②아니오(0)

4 여성이 옷을 벗거나, 소변을 보거나,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데 매우 많은 시간을 할애한 적이 있는가?
①예(1) ②아니오(0)

5 본인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여성을 몰래 바라보면서 자위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가?
①예(1) ②아니오(0)

※위 문항에서 모두 (1)점을 획득한 경우 관음증의 가능성이 있다. 단, 이 테스트는 진단을 위한 것은 아니며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통한 충동은 제외한다.

션·정혜영 부부의 아름답게 사는 법

이름만 들어도 행복한 '기부천사' 부부

이름만 들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 연예계에서는 션·정혜영 부부가 대표적이다. 특히 션과 정혜영 부부는 '천사부부'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아름다운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나눌수록 행복이 커진다는 이들 부부만의 아름답게 사는 법을 들여다봤다.

글_ 조영곤

'천사 커플' 션과 정혜영 부부는 최근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기금 모금 운동인 '만원의 기적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365억원의 설립 기금을 조성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도 함께 피력했다.

션과 정혜영 부부는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기부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들의 기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슈로 작용하며 일반인의 기부 대열 합류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모 설문조사 결과, '가장 부러운 연예인 부부 1위'에 선정되는 등 이름만 들어도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다.

"많이 부끄럽죠. 남들에게 어떤 인정을, 또 어떤 모델로 부각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한다고 해야 할까요.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고민해서 좋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해요."

션과 정혜영 부부는 세간의 관심과 열렬한 호응에 겸손한 모습이다. 자신들의 평소 소신을, 그리고 의지를 발현하는 것뿐이라는 의미다.

부부의 말처럼 이들은 빼빼로데이를 기념해 부인 명의로 기금을 출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겸손해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의 다양한 기부활동이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명인사들 가운데서도 기부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거액 쾌척 등으로 지면에 오르내린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이 볼 때 거액의 쾌척은 박수를 보낼 만 한 일이지만 자신에게는 쉽지 않은 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션과 정혜영 부부는 소액기부 등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쳐, 일반인들에게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정혜영은 이와 관련, "남편에게 많은 것을 배워요.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 등을 대비해 미리 천원, 만원씩 저축을 해요. 그래서 기념일에 가족 이름으로 기부를 하죠. 처음엔 쉽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기부를 통한 사랑을 느끼면서 오히려 행복이 배가 되는 기분이죠."

기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

션과 정혜영 부부에게 기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인가 보다.

션은 '오늘 더 사랑해'란 책을 출간했다. 당시 아내에게 "글을 쓰면 좋은 선물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책은 13만부가 넘게 팔렸고 인세 수입도 상당했다. 그런데 독자와의 만남에서 "인세 다 기부하실거죠?"란 질문을 받았고, 얼떨결에 "그렇다"고 답했다.

아내에게는 좋은 선물을 약속한 터였다. 아내, 그리고 독자와의 약속 사이에서 난감해 하던 션은 해법을 찾았다. 인세 약 1억3천만원으로 '정혜영 장학회'를 만들어 전액 기부한 것이다. 션·정혜영 부부는 지난 2005년 결혼해 첫째 딸 하음, 둘째 아들 하랑, 셋째 아들 하율에 이어 지난 7월 넷째 딸 하엘을 출산 2남 2녀를 둔 다산 가족이다. 이런 와중에 국내외 400여명의 불우한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위기가정 아이들을 위해 최근까지 총 4억원을 기부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집안이 부자라서 기부를 많이 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션은 "가족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아끼면서 기부를 하고 있다"며 "부자는 맞긴 맞다. 마음이 부자다(웃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 어느 누구보다 풍요롭다"고 말했다.

더덕구이와 삼겹살구이

글_ 황인철 구미병원 산부인과 교수

기나긴 동면의 시간이 지나고 봄이 왔네요. 올해에는 유난히 눈 소식도 많고 추운 날도 많아서 많은 분들이 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봄이라는 단어에 유난히도 설레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그득합니다.

최근 아웃도어 요리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박2일〉이라는 야생 버라이어티 TV 프로그램이 큰 몫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자연이라는 대상을 통해 마음과 몸을 정화하고 싶은 트렌드가

recipe

재료 싱싱한 더덕 한 봉지
양념 고추장 2T, 참기름 1T, 물엿 1T
초벌구이 참기름과 간장

1. 더덕을 상하지 않게 씻은 다음 칼로 껍질을 벗겨냅니다. 이때 손이 더덕에서 나오는 진으로 더럽혀 질 수 있으니 꼭 장갑을 착용하세요.
2. 망치나 둔탁한 둔기를 이용해서 더덕을 몇 번 쳐줍니다. 약간의 단단한 모양의 변화만 가져오면 돼요.
3. 더덕에 참기름을 바르고 일단 초벌구이를 합니다.
4. 분량의 양념으로 만든 양념장에 더덕을 고루 무쳐줍니다.
5. 마지막으로 겉을 살짝 그을릴 정도의 더덕을 굽습니다.
6. 같이 구워 먹는 삼겹살은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어떤가요?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나요?
더덕하나 구웠을 뿐인데 주위의 향기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상상은 저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전국에는 볼 것도, 즐길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추위가 풀리면 모두 가벼운 옷차림을 자연을 찾아 떠나 보도록 적극 권해드립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가족의 화합과 건강을 같이 챙겨보시죠~.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특별한 캠핑과 아웃도어 요리를 기획하고 있답니다. 단순히 하룻밤의 추억과 고기 먹는 즐거움에 보다 더 진화하여 우리나라 사계절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지방특산물을 맛보는 식도락 기행이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특징과 함께 각 지역마다 산세가 우거져서 그 지역 독특한 특산물이 있답니다. 그런 특산물을 통한 맛집 기행도 좋지만 직접 특산물을 사고 고르면서 음식까지 하는 일석삼조의 여행을 꿈꾸고 있어요.
지난해 가을 강원도 한 지역에 캠핑을 가서 먹었던 더덕구이가 생각납니다.
캠프장 입구 근처에서 직접 채취해서 팔던 더덕 한 봉지를 사다가 삼겹살과 같이 구워 먹었더니 삼겹살과 더덕구이의 향기가 함께 어우러져 색다른 추억과 경험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오늘은 더덕구이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travel + Communion

김진국 교수의 걷기 예찬

앙상한 가지, 바싹 마른 풀잎들, 찬 기운 막으려 코트를 여미며 단단히 경직돼 있는 행인들. 물러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겨울의 끝에서 문득 추위 속에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며 요염한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는 동백꽃이 보고 싶어졌다. 한겨울에 만나는 친구라 하여 세한지우(歲寒之友)라 불리는 동백꽃. 동백꽃이 피는 섬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지만 조금이나마 봄과 더 가까운 거제도의 지심도를 가기로 결정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5시간이 족히 걸려 운전으로 인한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지심도 주변을 좀 더 둘러보고 싶은 마음에 1박2일의 자동차 여행을 결심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하기를 반복하다보니 어느새 거제도라는 반가운 표지판이 나타났다.

글 · 사진_ 김진국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장내과 교수

동백꽃 붉은 지심도에서 세한지우(歲寒之友)를 만나다

지심도(只心島)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섬의 모양이 마음 심(心)자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거제 8경 중 하나이자, 원시 상태가 가장 잘 보존된 곳이기도 하며, 전국에서 걷고 싶은 길 17선에 선정된 바 있다. 한 방송국의 간판 프로그램인 〈1박2일〉에도 소개돼 관광객들 사이에서 더 유명한 걷기 코스로 자리 잡았다. 지심도의 동백꽃은 12월 초부터 4월까지 피고 짐을 반복해 아름다운 동백섬을 유지시켜 준다. 오솔길을 따라 아름드리 동백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어 바다에 떠 있는 천혜의 자연 휴양섬이라 할 수 있다.

색다른 매력으로 손짓하는 지심도

주말 아침, 관광객들이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지심도 선착장으로 향했다. 8시 30분 첫 배를 타니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지심도에 도착했다. 먼저 지심도 일주도로 코스를 확인한 후 발길을 옮겼다. 처음에는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가파른 콘크리트 벽의 민박촌을 지났다. 민박촌을 벗어나자 방송이나 사진 이미지로 많이 봐왔던 익숙하고 반가운 해안절벽의 풍경이 펼쳐졌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지나 포진지와 탄약고로 향하는 길은 동백나무와 금솔나무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숲길을 완성하고 있었다. '걷기에 참

좋은 길이구나' 연신 감탄을 금치 못하며 지나가는 이 길은 사실 우리의 뼈아픈 역사가 남아 있는 곳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 섬의 위치 때문에 군사 요새로 사용됐고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다. 지금은 지심도 역사박물관으로 탈바꿈해 색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다.

겨울에 더 아름다운 자연의 축복

활주로 길을 지나 환상적인 해안선 절경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선 전망대에 다다르니 파도와, 숲, 해안 절벽의 하모니가 아름답다. 지심도 일주도로의 끝 지점이자 반환점인 그곳에 서서 바닷바람 맞으며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본다. 그간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이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섬새들의 노랫소리가 어우러지니, 지심도는 그야말로 자연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별난 2월 한파로 인해 아쉽게도 아직 동백꽃이 만개한 상황은 아니다. 군데군데 꽃망울을 터뜨려 피어 있거나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동백꽃망울들. 동백길 주변 대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꼿꼿이 뻗어 그 곧은 절개를 자랑하고 있다. 겨울에 만나 더 아름다운 자연, 감히 그들에게 세한지우의 연을 맺자고 청해본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해 걷다보니 어느덧 다시 지심도 선착장을 향하고 있다. 여유롭게 즐겼는데 지심도 일주도로를 감상한 시간은 딱 2시간. 약속이나 한 듯이 정기 운항 배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TIP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지심도의 민박촌에서 하루를 묵으며 즐기는 바다낚시를 추천할 만하다. 시간 여유가 있을 때에는 유람선으로 한려수도 국립공원을 감상하는 것도 좋고 배가 싫다면 통영에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좋다. 인근 맛집으로는 거제도 지심도 선착장 주변 해물 뚝배기로 유명한 '항만 식당'을 추천한다.

'오가닉'은 한물 갔다? 이제는 '로가닉'이 대세!

천연 그대로의 특별함에 감동스토리까지…소비자들의 새로운 선택

최근 몇 년 간 우리 사회를 웰빙 열풍의 한 가운데 있었던 '유기농' 제품들. 하지만 건강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이제 유기농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2% 부족한 유기농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바로 '로가닉'이다. 유기농을 의미하는 오가닉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 '로가닉'이란 과연 무엇일까?

글_ 정재학

"이거 유기농 원료로 만든 것 맞나요?"

건강에 민감한 김 여사. 장을 볼 때면 항상 원료의 성분부터 파악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맛이나 모양은 두 번째다. 식품은 물론 화장품이나 의류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김 여사가 필수로 생각하는 원료는 바로 유기농이다. 유기농 원료로 만든 화장품을 바르고, 음식을 먹고, 옷을 입는다.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힘입어 최근 몇 년 간 소비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유기농 열풍이 거세게 불었다. 유기농 제품만을 판매하는 전문 매장들이 잇달아 등장하는가 하면, 식품은 물론 옷이나 기저귀, 화장품, 과자 등에 이르기까지 유기농 제품 붐이 일었다. 유기농이라는 수식어를 달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될 정도였다.

최근 유기농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로가닉'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로가닉(Rawganic)'이란 천연 상태의 날 것을 의미하는 '로(Raw)'에 유기농을 의미하는 '오가닉(Organic)'을 합성해서 만든 용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베스트셀러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김난도 교수가 자신이 이끄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원들과 함께 쓴 책 〈트렌드코리아 2012〉를 통해서 2012년 소비 트렌드의 하나로 바로 이 '로가닉'을 꼽은 것이다.

김난도 교수는 로가닉의 세 가지 핵심적인 가치요소를 "첫째, 날 것 상태인 천연 그대로의 성분을 사용하는 것, 둘째, 희소성이 있는 것, 그리고 셋째는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히말라야 빙하수에서 '고양이 똥' 커피까지

히말라야스프링워터스라는 국내 생수 회사가 선보인 '히말라야 온탑'이라는 생수는 히말라야 빙하를 뚫고 파낸 물이다. 히말라야 국립공원 내 해발 3000미터 지하 암반에서 취수해서 2000미터 지역의 청정공정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사람들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날 것 중의 날 것인 셈이다. 히말라야 빙하수로 커피를 타 먹으면 커피 맛까지 달라질 정도라고 한다. 히말라야 빙하수는 마시는 용도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천연이면서 날것이라고 해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진정한 로가닉이 아니다. 희귀성이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커피 루왁이다. 일명 '고양이 똥' 커피로도 불리는 커피 루왁은 인도네시아의 긴 꼬리 사향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건져 낸 커피다. 사향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게 되면 커피 열매는 소화가 되고 소화되지 않은 커피 알은 배설되는 데 소화 과정에서 침과 위액 등의 섞여 소화기관을 지나면서 발효과정을 거쳐 독특한 맛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맛도 맛이지만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양이 500~700kg에 불과할 정도로 희소가치가 높다. 긴 꼬리 사향 고양이를 우리에 가둬놓고 대량 사육하면서 커피 열매를 사료로 먹이지 않는 한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맛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로가닉의 세 번째 특징은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얻은 커피며, 히말라야 산에서 퍼온 생수에 어찌 스토리가 없을 수 있겠는가. 히말라야 빙하수를 한 잔 떠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마 에베레스트 산 높이만큼의 이야기가 줄줄 나올 것이다.

로가닉 제품의 관건은 무엇보다 본질적 기능에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홍보나 마케팅과 같은 비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불로초 찾아 헤매듯, '로가닉'에 탐닉

로가닉 열풍을 단순히 건강에 대한 관심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근저에는 인간의 깊은 욕망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난도 교수는 "이념과 세대를 초월해서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아 나섰던 그런 염원을 현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늙기도 싫고 죽기는 더 싫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매도록 했던 인간의 욕망이 '로가닉' 제품들을 찾아 해매고 있다는 얘기다.

로가닉 제품의 관건은 무엇보다 본질적 기능에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홍보나 마케팅과 같은 비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병원이라는 공간 역시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무관하지 않다. 늙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염원이 가득한 공간이기도 하다. 본질적인 기능과 가치란 어떤 것일까?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분명 이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보적인 의료 기술과 그 기술로 이뤄낸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병원. 순천향병원이야 말로 2012년 트렌드인 '로가닉' 병원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이미지 변신을 꿈꾸는 당신,

명품 안경 'Lindberg'를 주목하라

글 _ 이창우

이명박 대통령, 이건희 삼성 회장과 빌 게이츠. 그리고 루퍼트 머독과 베르나르 베르베르, 국내 연예인 권상우와 박명수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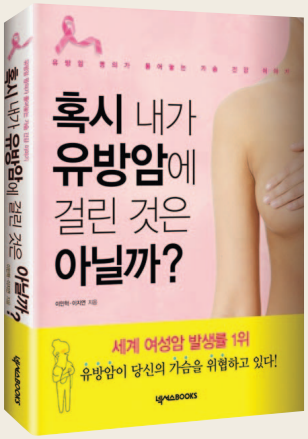
어떤 대단한 철학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면 실망스럽겠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덴마크 린드버그(Lindberg) 안경을 착용하는 것을 즐긴다는 것이다. 린드버그 안경테는 명품 안경테로서 손꼽히는 브랜드 중 하나이다. 안경테 가격은 50만 원대부터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가볍고 심플하다는 것이 이 안경테의 큰 장점이자 컨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인물들은 강한 인상이거나 솔직히 잘 생긴 얼굴들은 아니다. 하지만 린드버드 안경테를 착용하면서 '부드러워 보인다' 거나 '잘 생겨 보인다' 는 말을 듣는다.

린드버그(Lindberg) 올리버피플(Oliver Peoples)등 국내에 수입된 하우스 브랜드는 10여 종에 이르며 젊게 보이게 하는 이미지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안경은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로 단시간 내 이미지나 첫 인상을 바꿀 수 있어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샤넬, 토즈 등 명품안경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차별화한 하우스 브랜드 제품들이 인기가 높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린드버그 제품이다.

세계적인 패션소품 트렌드가 '빈티지'쪽으로 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아이템이 바로 뿔테 안경이다.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 외에도 클래식 안경을 선호하는 정치가나 유명 인사들에게도 이미지 변신용으로 사랑 받고 있다.

안경은 시력보정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넘어 스타일을 표현하는 잇아이템이다.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은 이제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중요해 지고 있다.

이미지 변신을 꿈꾸고 있다면, 명품 안경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명품화 시켜보자.



이민혁 · 이지연 부녀 의사가 함께 쓴 '유방암' 이야기

'혹시 내가 유방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저자들은 우리나라 유방암 현실 인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유방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독자에게 유방 건강의 중요성을 알려 준다. 유방통 · 유두 분비 · 유방 혹 등 유방과 관련한 다양한 질병을 소개하고, 이들 질병과 유방암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도 쉽게 소개했다.

정리_ 편집부

유방암은 현재 세계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이다. 국내에서도 여성암 발생률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40대 젊은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서구보다 높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예방하고 검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유방암 현실 인식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유방 건강에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이민혁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서울병원 유방클리닉)와 이지연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혹시 내가 유방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 유방암 명의가 풀어놓는 가슴 건강이야기'를 출간했다.

부녀지간인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유방암 현실 인식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유방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독자에게 유방 건강의 중요성을 알려 준다. 유방통 · 유두 분비 · 유방 혹 등 유방과 관련한 다양한 질병을 소개하고 유방암 증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유방암이 생길 확률에 대해 알아보는 것부터 유방암 예방법 · 자가 진단법 · 유방암 진단과 치료 · 유방 복원 · 수술 방법과 유방암 치료 후 관리법까지 유방암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유방암을 치료 중인 여성에게는 100% 완치를 위한 알짜배기 정보도 수록했다.

각 장마다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환자 사례를 '진료실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모유 수유에서부터 유방 확대와 축소까지 유방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끝부분에는 역사 속 유방 이야기를 담아 자칫 딱딱하거나 무거워질 수 있는 내용에 읽는 재미를 더했다.

이민혁 교수는 "다른 곳은 조금만 이상을 느껴도 병원을 찾으면서 유방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병원을 찾지 못하고 병을 키우는 여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이 책을 통해 유방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지켜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저자인 이지연 씨는 "유방외과 의사 아버지와 앞으로 유방 건강에 기여하고 싶은 가정의학과 의사 딸이 유방과 유방질환에 대해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모두 들려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SCH

■ 저자 소개

이민혁 : 1975년에 한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1983년부터 현재까지 순천향대병원 외과 유방클리닉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하버드 의대 전임의 재직, 세계유방암학회 조직위원장 및 대회장, 유방학 교과서 편찬위원장,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역임

이지연 : 이민혁 교수의 딸로 200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로 수련 중이다. 2001년 고등학교 재학 중에 영문소설 '내 이름은 디니'를 번역한 바 있다.

4월 7 ·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서 감동무대

로린 마젤, 18년 만에 내한공연

'영국의 자존심'으로 일컬어지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는 영국 클래식 음악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리차드 스트라우스,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마리아 굴리니, 로린 마젤, 리카르도 무티,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등이 이 오케스트라를 거쳐 갔다.

정리_ 편집부

세계적인 거장 지휘자 로린 마젤이 '영국의 자존심'으로 일컬어지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오는 4월 한국 팬과 만난다.

마젤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평양과 서울에서 공연한 것과 첼리스트 장한나의 지휘 스승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미국 마에스트로 마젤은 9세 때 뉴욕 세계박람회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2년 뒤인 11세때 NBC 교향악단을 지휘한 '신동'이었다. 이후 30세에 바이로이트 음악제에 데뷔, '로엔그린'을 지휘하며 대성공을 거두는 등 승승장구를 거듭하며 오랜 세월 동안 세계 정상의 지휘자로 활약해 왔다.

특히 1980년대부터는 세계 곳곳에 방송되는, 클래식계에서 가장 '핫'(hot)한 공연인 빈 필하모닉 관현악단의 신년음악회 지휘를 맡아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마젤의 음악은 강렬한 개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귀에 익은 곡이라도 그가 지휘하면 전혀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다. 즉 전통양식에 구애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밝은 현대인다운 지휘가 바로 마젤의 지휘다. 말러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마젤은 '가장 위대한 말러리안'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 그가 이번 내한공연에서 말러 1번과 5번을 들려줄 예정이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곡은 결코 지휘하지 않는다"고 한 마젤이 들려주는 말러는 어떤 느낌일까. 그는 말러에 관해 "다른 어떤 작곡가도 성공한 적이 없었던 선구적인 음악적 요소들을 도입했던 놀라운 인물이며, 그는 자신 안에 모든 역사 속의 공간과 장소를 갖고 있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말러는 인간의 모든 감정의 다양성을 소리로 완성해내는 천재성을 가진 완벽한 인간"이라며 "말러 음악을 연주할 때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의 음악을 통해 마치 말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다. 음악적인 성숙도가 경지에 달했다고 볼 수 있는 마젤이 이번 공연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말러를 들려줄지 궁금하다. SCH

News + Communication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해외참전용사 후손들의 건강까지 지킵니다"

우리나라에 유학 중인 6.25전쟁 해외참전용사 후손 9명이 3월 2일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을 찾았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연말 한국전쟁기념재단과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가 해외참전용사 후손들의 건강검진을 비롯해 병원 진료와 진료비 지원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협약 체결함에 따라 이뤄진 첫 행사이다.

두 기관을 대표하는 한국전쟁기념재단 백선엽 이사장과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서교일 이사장도 이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6.25전쟁 해외참전용사 후손들의 의료지원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10시부터 진행한 건강검진은 흉부 X-선 촬영, 혈액 및 소변검사, 청력 시력검사, 혈압 혈당검사 순으로 이어졌다. 검사 결과는 1주일 정도 후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61년전 6.25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손자인 아벨 가르비에 알라무(Abel Gebryye Alemu)는 "참전용사의 후손이어서 유학을 오게 됐다. 건강까지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고국 발전에 기여하고, 나눔의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한국전쟁기념재단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21개국 UN연합군 후손들의 교육지원 및 장학 사업을 위해 2010년 6월 창립됐다. '받았던 나라에서 되갚는 국가로, 교육으로 보은합니다'를 설립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날 검진을 받은 6.25참전용사 후손 장학생은 터키 참전용사 후손인 제일린 등 4개국 9명이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생명 나눠 기뻐요" 의사 조혈모세포 기증 서울병원 공민규 전공의

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에서 내과 전공의로 근무 중인 공민규 씨가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미담이 되고 있다. 현직 의사로 환자를 직접 돌보고 있는 공민규 씨는 1월 12일 순천향대 서울병원 혈액분반실에서 4시간여에 시술로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공민규 씨는 "환자를 직접 보살피는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마침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기쁘다"며 "내 조혈모세포를 받을 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원이 잘 맞아 완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혈을 하고 있는 공 씨는 4년 전 헌혈의 집을 찾았다가 조혈모세포 기증을 약속했다.

"고향길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서울병원 용산역 의료봉사

서울병원은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KTX 용산역에서 무료진료를 진행했다. 설을 앞두고 건강한 고향길 나들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의료봉사 활동은 혈압, 혈당, 골밀도 검사를 비롯해 치매 위험도 검사와 상담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열차표 예매를 위해 용산역을 찾았다는 강순애(57세) 씨는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 골밀도 검사를 받았는데, 괜찮은 것으로 나왔다"며 "우연한 기회에 건강을 확인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의료봉사에 참여한 전희진 간호사는 "매일 600여명의 시민들이 찾아 주시고, 모두들 고마워하신다"며 "고향 길 건강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주영, 터키 의료진에 내시경 수술법 전수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조주영 교수팀이 혈맹의 나라 터키에 내시경 수술법을 전수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터키 의료진은 수도 앙카라 지역의 '역 색잇사스 국립병원(Yuksek ihtisas Hospital)'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에 게재된 조주영 교수팀의 연구를 접한 후 한국 방문을 결심하게 됐다.

이들은 2주 동안 조기위암 환자의 내시경 수술을 참관하고, 위 원형을 그대로 살린 채 내시경과 복강경만으로 암조직을 떼어 내는 하이브리드 노츠(Hybrid NOTES) 수술도 함께 배웠다.

한국을 찾은 엘칸 파락(Dr. Erkan Parlak) 교수는 "터키는 한국과 같이 짧은 시간 동안 경제적인 발전을 했지만 내시경 수술 등 의료기술은 한국이 월등하다" 며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해 터키에도 내시경 수술을 정착 시키겠다"고 말했다.

갑상선 수술 심포지엄 개최

순천향대의대 외과학교실은 3월 9일 순천향대 서울병원 CEO강의실에서 '제2회 순천향 갑상선 수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갑상선암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갑상선암의 진단, 내시경 수술 및 수술 후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발표해 100여명의 참석자들로부터 관심을 모았다. 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유명희 교수가 좌장을 맡은 1부에서는 최인호 병리과 교수가 '갑상선 세침흡입 검사의 병리학적 진단체계'를 발표하였고, 박정미 부천병원 핵의학과 교수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의 최신 현황'을 발표했다.

외과 이민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2부에서는 우희두 외과 교수가 '내시경 갑상선 수술의 최신지견'을 김성용 천안병원 외과 교수가 '변형 경부 임파절 절제술의 최신 현황'을 각각 발표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제6 · 7대 병원장 이 · 취임식' 거행

부천병원(병원장 황경호) '제6 · 7대 병원장 이 · 취임식'이 12월 29일(목) 오후 4시 원내 향설대강당에서 거행됐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이사장, 김부성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상임이사, 김성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등 주요 임직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대식 병원장이 이임하고, 제7대 병원장으로 황경호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취임했다. 또한 이날 박재성 부원장이 이임했으며 신임 부원장으로는 소화기내과 이문성 교수, 외과 김형철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2012년 임진년 시무식 열려

부천병원이 2012년 임진년 시무식을 1월 2일(월) 오전 7시40분 원내 향설대강당에서 거행했다. 2012년도 시무식은 새롭게 병원장으로 취임한 황경호 병원장을 위시해 교직원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황경호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료수가 및 약가 인하, 국제적 기준의 병원 평가 등 의료계가 처한 현실이 만만하지 않은 만큼 우리병원의 진료 활성화 및 진료지표관리를 통해 대학병원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병원장으로서의 신년포부를 밝혔다.

제11차 캄보디아 의사연수 수료식 및 임상연구회 발표회 개최

부천병원이 '제11차 캄보디아 의사연수 수료식 및 임상연구회 발표회'를 1월 12일(목) 오후 4시 원내 순의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이사장, 김부성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상임이사, 황경호 병원장 등 주요 임직원 약 80여명이 참석해 캄보디아 의사들이 성공적으로 연수를 마치게 된 것을 축하했다. 제11차 캄보디아 의사 수료생은 또잇 솜밭(정형외과 · 지도교수 임수재), 농 사나렛(외과 · 지도교수 임철완), 새앙 분타릿(성형외과 · 지도교수 김용배) 씨 등 3명으로 이들은 모두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본원에서 각 과에서 연수를 받았다. 연수생들은 이날 의료진 및 교직원들 앞에서 1년간 연수를 받으며 연구한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인공신장센터 확장 기념식 개최

부천병원(병원장 황경호) 인공신장센터 확장 기념식이 3월 8일(목) 오후 4시 원내 인공신장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이사장, 김부성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상임이사, 황경호 병원장, 황승덕 인공신장센터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로워진 인공신장센터는 규모가 423㎡에 서 561㎡로 25% 증가됐으며, 병상 수 역시 25개에서 37개로 33% 늘었다. 업그레이드된 혈액투석 인공신장기 FMC 5008S를 도입해 치료 효율 및 안전을 도모했다. FMC 5008S 인공신장기에는 체외순환 혈액온도 감지장치가 장착돼 있어 투석 중 발생할 수 있는 저혈압 확률을 크게 줄여준다. 또한 누출센서, 무결점 테스트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황경호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진행한 확장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힘 써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부천병원 인공신장센터는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 부문 혈액투석 1등급을 획득한바 있다.

서울병원 동정

최득린 교수,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장 취임
최득린 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 제16대 회장에 선임, 2월 18일 취임했다. 임기는 2014년 2월 17일까지 2년이다. 최득린 교수는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1982년부터 순천향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한방사선의학회(현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이사, 보험이사와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동환 교수, 아시아유전성대사질환학회 주관
희귀질환이 많은 유전성 대사질환의 새 진단과 치료법을 점검하는 '제2회 아시아유전성대사질환학회 학술대회 및 제12회 유전성 대사질환 아시아 · 유럽 워크숍'이 4월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이동환 순천향대 교수(순천향대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주관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아시아 · 유럽의 석학 2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유전성 대사질환의 발전을 통한 보다 건강한 인류, 보다 건강한 아시아, 보다 건강한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다.

부천병원 동정

김태희 교수/산부인과
2011. 12. 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011 연구보고서『고령 임산부의 임신결과 및 정책지원 방안』책자를 출간

박춘식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
1.1 ~ 12.30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지정 과제 '인체자원협력은행 국고지원사업(계속과제)'에 대한 당해 연도 연구비 1억8,500만원을 수혜

국가감염병 자문기관으로 선정
1. 30 본원,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국가 감염병 자문기관'으로 선정

문종호 교수/소화기내과
2.2~8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제14회 국제치료 내시경 심포지엄에서 초청 강연 및 내시경 시술 시연

김진국 교수/신장내과, 이유경 교수/진단검사의학과
2.13~20 미국에서 열린 CRRT 2012 미국신장학회에서 주제 발표

김세형 교수/종양혈액내과
2.15~19 홍콩에서 열린 3rd international Hematologic Malognacies에서 주제 발표

박성규 교수/종양혈액내과
2.23~24 일본에서 열린 일본 조혈모세포이식학회에서 주제 발표

이영구 교수/정형외과
2.26~29 태국에서 열린 Arthrex 학회에서 주제 발표

이헌 교수/영상의학과
3.1~7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European Congress of Radiology에서 주제 발표

백상현 교수/영상의학과
3.12~16 미국에서 열린 STR 학회에서 주제 발표

News + Communication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혈액질환 환우 및 환우가족 대상 희망나누기' 행사 개최

부천병원과 한국혈액암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혈액질환 환우 및 환우가족 대상 희망나누기' 행사가 지난 1월 27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본원 별관 지하 1층 순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혈액질환 환자들 및 보호자들의 질환 궁금증 해결과 소통을 위해 마련됐으며 건강강좌, 신약강좌, 환우 투병수기 발표, 의료진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약 100여명이 참석해 호응을 보냈다.

현대百 중동점, 부천병원에 환자 후원금 2,000만원 기탁

현대백화점 중동점이 2월 8일(수) 오전 11시 부천병원에 환자 후원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후원금은 중동점 및 고객동호회가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부천병원에 올해로 벌써 7회에 걸쳐 기증됐다. 이날 기증식에는 병원 및 백화점 주요 임직원, 후원을 받게 될 환자와 보호자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현대백화점 중동점은 지난 2007년부터 7회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후원금을 부천병원에 기탁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최고 성능의 암 검사장비 '128채널 PET-CT' 가동

천안병원은 최근 교체 도입한 '128채널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에 대한 시험운전을 마치고 2월 13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전신에서 발생하는 암을 한 번의 검사로 거의 대부분 진단해낼 수 있는 128채널 PET-CT는 현존 최고 성능의 PET-CT다. 가장 많은 채널수를 보유해 환자들에게 빠른 검사 서비스가 가능하고, 2mm의 작은 암 병변까지 구별해 낼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해상도를 제공해 환자들은 매우 편리하고 정확한 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28채널 PET-CT는 또 다른 기종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방사선을 검사에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양이 적어 더욱 안전한 검사를 제공한다. 국내 대학병원에서 두 번째로 천안병원이 도입한 128채널 PET-CT는 암조기진단 외에도 암수술 전 병기확인과 치료 후 평가에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암진단과 암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료장비다.

"문패 달았어요" 향설송원(鄕雪松苑) 표지석 제막식 열어

천안병원은 2월 11일 향설송원(鄕雪松苑)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다. 제막식은 서교일 이사장을 비롯한 순천향대학교와 순천향의료원 산하 4개병원 경영진, 천안병원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향설송원은 2011년 4월에 개장한 환자쉼터로 정자 2개소와 대리석 벤치 11개, 고급 정원수인 소나무 대목 25본과 중목 6본을 비롯한 정원수 1만여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24시간 음악과 다채로운 행사로 휴식공간이자 즐거움이 있는 명소다. 향설(鄕雪)은 순천향대학교와 천안병원 등 4개 부속병원 설립자인 서석조 박사(1921~1999, 신경내과학을 처음 들여와 발전시킨 명의)의 호, 그리고 '송원(松苑)'은 소나무 큰 정원이라는 뜻이다.

넓고 아늑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외래진료관

천안병원은 최근 외래진료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서쪽 면을 1,185.58㎡(359.64평) 확장함으로써 보다 여유롭고 전문화된 공간으로 꾸몄으며 외벽은 대부분 복층유리로 마감해 개방감을 높였다. 동시에 풍부한 자연채광으로 밝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넓어진 진료과들은 검사 및 치료실을 한 공간으로 모아 전문성과 이용 편의성을 한 층 높였으며,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 아늑한 독립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춘향가와 수중가가 울리는 대장암 강좌

천안병원 대장암센터(센터장 백무준)는 2월 24일 오후 2시 병원 교육관 강당에서 '대장암 환자의 날' 행사를 열었다. 100여명의 환자 및 가족들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루었으며 강의 중간에 국악인 최예림 씨를 초청해 판소리 공연으로 환자 및 가족들을 위로했다. 외과 백무준 교수를 비롯해 방사선종양학과 여승구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이화영 교수, 오현경 약사, 조혜경 대장암 전담간호사, 한은경 영양사가 연자로 나서 '최신치료법', '노발리스티엑스 치료', '정신건강관리', '치료약품', '장루관리', '영양관리'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환자 돕기 사랑의 헌혈행사

천안병원은 2월 24일 환자 돕기 '사랑의 헌혈행사'를 펼쳤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 혈액원의 헌혈차량을 지원받아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교직원들은 근무시간을 쪼개 삼삼오오 헌혈차량을 찾았다. 헌혈증은 환자들을 위해 기증했다. 천안병원은 매년 2회 이상의 헌혈을 통해 환자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외과 조무식 교수 정년 퇴임

천안병원 외과 조무식 교수가 2월 29일부로 정년 퇴임했다. 퇴임식은 2월 24일 오후 6시 천안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서교일 이사장과 이문수 병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외과학회 회원 및 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퇴임을 축하했다. 조무식 교수는 1971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7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천안병원에서 1982년 개원과 함께 외과에서 의술을 펼치면서 9대 천안병원장과 의과대학장을 역임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오천환 병원장 취임식 및 시무식

구미병원은 1월 2일 오천환 병원장의 제17대 병원장 취임식 및 시무식을 갖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2012년을 맞이했다. 김성구 순천향중앙의료원장 및 전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오천환 병원장은 진료의 혁신, 교직원 화합과 단결, 고객만족 향상 등을 2012년 중점과제로 제시하며 "경북 중서부권 거점병원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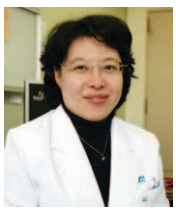
나눔 실천에 감사 '자원봉사자 간담회'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구미병원은 1월 19일,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병원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파트의 봉사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천환 병원장은 "의료진을 대신해 환자들을 보듬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자원봉사자들의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일상생활 속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응급처치요령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며 봉사활동에 대한 의견교환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신규 간호사 입문 교육 실시

간호부는 2월 7일부터 일주일간 교육관에서 51명의 2012년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신규 간호사의 임상적응을 돕기 위해 실시된 교육은 병원행정 절차 및 후생복지, 환자권리와 책임, 간호와 직장윤리로 구성된 의료윤리를 비롯해 안전관리, 감염관리, 의료의 질향상, 친절교육 및 의사소통술 등 간호실무와 업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햇살아이지원센터' 총회 및 대표 이 · 취임식



학대아동 발굴 및 의료 지원을 펼치고 있는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의 대표 이 · 취임식 및 총회가 2월 15일, 향설교육관에서 열렸다.
소아청소년과 이희경 신임 대표는 취임사에서 "학대아동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2차, 3차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으며 대표 취임과 함께 이사회에는 법률적 자문 등을 위해 변호사 등을 새롭게 위촉했다.

국가감염병 자문기관 선정

구미병원이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국가감염병 자문기관'에 선정됐다. 구미병원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감염병 표본감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병원 감염률을 제로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천안병원 동정

전섭 교수/산부인과
1.25~1.31 미국 부인종양연구회에서 연제 발표
김성용 교수/외과
1.29~2.4 프랑스에서 열린 23th ICACT에서 포스터 발표
길효욱 교수/신장내과
2.13~17 미국에서 열린 CRRT 2012에서 포스터 발표
이세환 교수/소화기내과
2.16~19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간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박계훈 교수/이비인후과
2.25~29 미국에서 열린 ARO에서 포스터 발표
한종규 교수/영상의학과
3.1~7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ECR 2012에서 포스터 발표
이은영 교수/신장내과
3.12~17 미국 Keystone Symposia 참석

신임 교원(3월)
이한민 · 현경희 교수(소화기내과)
박재석 교수(신장내과)
김기원 교수(내분비내과)
전영우 교수(종양혈액내과)
박지혜 교수(외과)
한원호 교수(소아청소년과)
노재휘 교수(정형외과)
김효진 교수(이비인후과)
김아름 · 김호 · 문형준 · 설승환 교수(응급의학과)
공형윤 교수(마취통증의학과)
이웅희 교수(영상의학과)

퇴직 교원(3월)
박은서 교수(소화기내과)
이혁규 · 조아라 교수(심장내과)
석수진 교수(신장내과)
고희자 교수(내분비내과)
모상일 교수(류마티스내과)
서지영 교수(소아청소년과)
김병구 교수(신경외과)
김민수 교수(정형외과)
신재민 교수(이비인후과)

구미병원 동정

신임 교원(3월)
강석정, 홍예슬 교수 (소아청소년과)
이현욱 교수 (정형외과)
위서영 교수 (성형외과)
박진형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이동하 교수 (응급의학과)
황성욱 교수 (병리과)
장윤영 교수 (재활의학과)
안희수 교수(치과)

퇴직 교원(2월)
박일성 교수 (소아청소년과)
백강석 교수 (흉부외과)
최우석 교수 (정형외과)
양형은 교수 (성형외과)
이동구 교수 (병리과)

34년만의 재경동창회 출범과 94명의 신입인턴 탄생

'2011년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가 지난 1월 28일(토) 오후 6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동은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김성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김선주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등 주요 내빈과 신입회원을 비롯한 동문회원 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경순천향대 의과대학 동창회 창립식, 시상식, 신입회원 환영식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동창회 역사에 중요한 재경순천향의대 동창회가 개교 34년 만에 창립되어 창립 선언과 동창회기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재경동창회 임원으로는 회장 윤석환(3기), 부회장 김태호(4기), 총무 윤석구(9기) 동문이 수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경동창회의 활성화가 더욱 기대됩니다.

자랑스러운 순천향인상 시상에는 김범태(2기) 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영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김범태 교수는 전국 신경계 관련 전공의를 대상으로 매년 신경해부학 강의를 13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부천병원 진료부장을 4년간 역임하였고, 현재 전산화추진위원장을 6년간 맡아 병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중입니다. 또한 활발한 학회 활동과 졸업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의과대학발전기금 모금에 중심적으로 기여를 하는 등 순천향인의 위상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학술상 분야에서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의 송호연 교수(4기)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문종호 교수(6기)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학술상은 최근 3년간 SCI 등재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한 기초, 임상 교수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공로상은 동기간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애쓰고 의과대학과 동창회 발전기금 모금에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일해주신 안무영(1기), 이영홍(3기), 남일(4기), 이규(5기), 강정협(5기), 박재상(6기), 박현서(7기), 위규석(8기), 노성래(14기) 동문에게 수여되었습니다.

9대 동창회를 이끌어갈 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가 있었는데 총 75명의 임원을 대표하여 부회장이신 김동원(2기) 동문이 받았습니다.

6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어려운 국가시험에 100% 합격의 영광을 안겨준 졸업생 88명과 새로이 의사의 길에 들어선 동문 10명을 합하여 총 98명의 신입회원(신입인턴)들에게 축하 선물과 꽃다발을 증정하였으며, 선물 안에는 멘토의 글을 담은 메모를 함께 넣어 앞으로 의사로서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총회에서 2011년 한 해 동안의 결산 및 동창회활동 경과보고와 2012년 예산 보고,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의를 통해 동창회 포상 규정, 동창회 발전기금 시행을 승인받았습니다. 회의 후 준비된 만찬을 통해 1회부터 29회 신입회원들까지 한 세대를 뛰어넘는 동문간의 교제와 동문애를 다지는 행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간행이사 김진국

■ 동창회 행사 모임 및 기금 참여에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하나은행 662-910022-17605 순천향의과대학동창회(자동이체 요망)
- 회비 : 월 1만원(일시불 연 10만원)
- 기간 : 평생

■ 순천향의과대학 동창회사무실(임시)
-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6-32 유진빌딩 2층
- Tel : (032)546-7174, 총무이사 백상업(010-5273-2031), 간사(010-9554-0820)
- E-mail : jaws62@naver.com

(동문 여러분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및 소식을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

Letter of Thanks

진정한 '미소 천사' 임유미 간호사님 파이팅!

저는 3년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이승진 교수님께 심근경색 시술을 받고 현재까지 심장내과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도재석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웃고 밝은 미소와 친절로 저뿐만 아니라 연로한 노인부터 고통스러워하는 환자까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베푸는 임유미 간호사님을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 수 있나' 하고 저 혼자 생각하고 망설이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칭찬합니다.

진정한 봉사정신이 몸에 배인 듯 친절로 환자를 가족같이 생각하는 훌륭한 간호사입니다.

한두 번이 아닌 3년을 보고 느낀 감정을 사실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의 간호사님들도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은행이나 관공서 직원보다 더 친절하십니다.

저도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인 KT의 서천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번 초청해서 우리 회사 전 직원에게 특강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임유미 간호사님!!! 항상 밝은 웃음과 고객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 변치 마시고 순천향대천안병원의 미소 천사가 되어 주시길 빌겠습니다.

사실은 원장님께 메일을 보내고 싶었는데 고객의 소리를 빌어 공개 칭찬합니다.

진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시는 원장님!!! 충남북부 지역의 종합병원으로서 첨단 의료시설과 우수한 의료진, 쾌적한 환경, 모든 면에서 최근 3년 동안 순천향대천안병원이 변화되는 모습을 제 눈에도 보이고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고객의 관점에서는 간호사님들의 친절과 밝은 웃음이 우선적으로 느껴지겠죠!!!

순천향대천안병원!!! 저의 고향과 같습니다.(제가 시술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제 글을 보시고 관리자분도 임유미 간호사님께 따뜻한 커피와 칭찬 한번 해 주셔요.

도재석

Healthy Dream, SCH!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눈치 없이 얼마나 당신을 제
인지 알게 해준 한사람인
게 너무도 고마운 당신을 영원히
너무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
다 사랑해

하늘 뜻 받들어
인간 사랑을 실천합니다

환자와 마음으로 소통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1등 품격으로 세상을 진료합니다.

SCH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9(한남동 657)
http://www.schmc.ac.kr

서울병원:02)709-9114

부천병원:032)621-5114

천안병원:041)570-2114

구미병원:054)468-9114